

청년생활

1957.5



유화 《원산 제네스트》 (1957년 작)　　　　오 택 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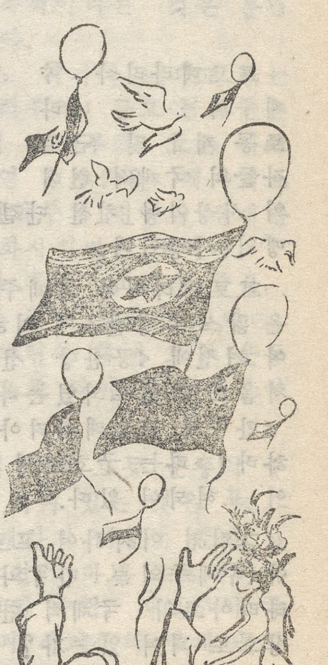
1929년 1월 원산 지구 로동자들 3천 여 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8시간 로동제 실시와 대우 개선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 파업을 단행하였다. 국내, 국제적 지지 성원을 받은 원산 지구 로동자들의 총 파업은 82일간이나 계속되였다. 이 투쟁은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급속히 앙양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서 조선 로동 운동 사상에 길이 빛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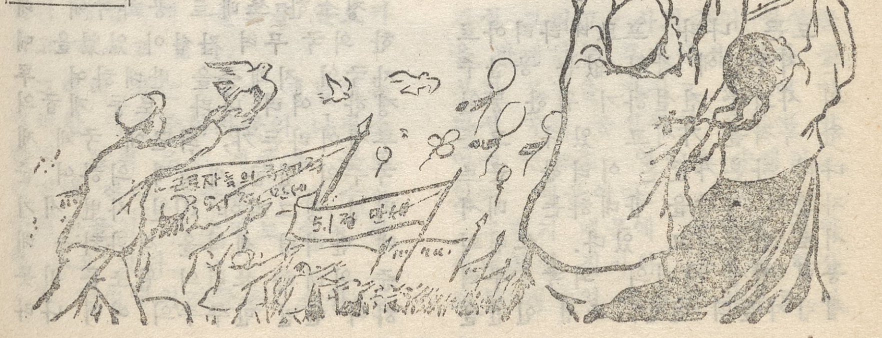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7. 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더욱 충실하자!

박 중 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모든 나라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의 국제적 련대의 사상이며 친선 단결 및 동맹의 사상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100여 년전에 《공산당 선언》에서 처음으로 선포되였는바 그것은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로써 그 본질이 표현되여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의 사상으로 되여 있는가?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는 지구상에 착취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 자본가들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지향을 반대하는 데서 서로 단결되고 있다. 쏘련의 공민 전쟁 시기의 외국 무력 침범자들의 련합, 조선 인민을 반대한 미제를 비롯한 외국 무력 침공자들의 침략 전쟁이 곧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러니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자기 나라의 부르죠아지 뿐만 아니라 타국의 부르죠아지도 또한 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들의 굳고 굳은 단결과 동맹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력사상에는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싸운 실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에 대한 외국 무력 간섭이 있었을 때 자국의 지배층을 반대하여 투쟁한 여러 나라 로동 계급의 투쟁이라든가, 최근에 국제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의하여 준비된 웽그리야 10월 사변 시기에 반혁명 세력을 격파하는 데 준 위대한 쏘련의 원조를 비롯하여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성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현 시기에 와서 모든 나라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친선과 단결은 더욱더 튼튼하여져 가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 자들에게 있어 큰 위협으로 된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지는 오늘날 더욱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과 통일을 발광적으로 파괴해 보려고 온갖 흉계를 다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적 수법의 하나는 민족적 감정을 리용하려는 그것이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렬하여 통치하라》라는 구호를 내들고 있다.

그들은 이 구호 밑에 민족적 리기주의를 선동하여 민족적 분렬을 장려하면서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대렬속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생활에는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나팔소리에 맞춰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에 아주 해독을 주는 수정주의자들의 목소리도 섞여 들려 오고 있다.

이 수정주의자들은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독자적》이니, 《평등》이니, 《자유》이니 하는 것을 떠들고 있다.

이러한 요란스러운 구호가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대하여 아주 해독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인 쏘련을 반대하며 그로부터 모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떼여냄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한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이 특히 쏘련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것은 쏘련이 국제 로동 운동의 중심으로 되여 있기 때문이다.

쏘련이 국제 로동 운동의 중심으로 되여 있는 것은 그가 비단 강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쏘련이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는 항상 로동 계급의 신성한 의무로 된

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원쑤들은 프로레타리아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대렬을 파괴하기 위하여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원칙을 중상하면서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일부 수정주의자들의 기도와 견해는 금번 웽그리야의 10월 사변에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그들은 웽그리야 사변에서, 반혁명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고수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의 일치한 원호— 특히 쏘련의 원조를 목청을 돋구어 비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번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세력을 진압함에 있어서 쏘련은 웽그리야 인민에게 큰 원조를 주었다. 이 반혁명 세력을 격파함에 있어서 쏘련 군대가 참가하게 된 것은 웽그리야 로농 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는 프로레타리아 련대성의 정당한 행동이였다.

이는 로씨야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웽그리야 혁명가들이 참가한 력사적 사실, 1944년에 외래 예속으로부터 웽그리야 인민을 해방시킴에 있어서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웽그리야에게 준 쏘련의 원조 등과 호상 밀접히 련계되여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과히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 웽그리야에서 부르죠아 제도를 복구하려고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쏘련이 웽그리야를 원조하지 않고 웽그리야가 고립 무원한 처지에 있었다면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의 온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이 웽그리야를 적극 원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분쇄하고 웽그리야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옹호한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가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한 오늘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더욱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국제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피압박 인민들의 장성하는 민족 해방 운동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평화 옹호 운동에 더욱더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인류 력사상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호상 협조와 단결의 튼튼한 관계를 설정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

각국 근로자들은 적들이 쏘련을 중상하고 국제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려고 획책하면 할수록 더욱더 쏘련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하며 더욱더 그의 경험의 위대성을 옹호하여 연구하며 그의 길을 따라 통일된 대렬로 전진하고 있다.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으로부터의 리탈은 곧 자기 자신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으로 되기 때문이며 이는 오직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강화만이 자기의 사회적 해방과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5. 1절은 《전 세계 로동자들이 자각적 생활을 위하여 궐기한 날이며 압박과 착취에 대하여 단결로써 투쟁하며 수백만 근로 대중이 기아와 빈궁과 압박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자기들의 조직된 력량을 시위하며 투쟁하는 신호의 날》 (레닌)로써 오늘날까지 기념되어 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1년전인 1886년 5월 1일에 미국 로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동맹 파업과 시위 운동을 단행하였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로동자의 생활은 몹시 비참하였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12—14시간의 힘겨운 로동을 하였었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굴욕과 학대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공업 중심지인 시카고의 로동자들은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전 시가에 물밀듯이 밀려든 22만의 시카고 로동자들의 시위 대렬은 자기들의 투쟁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들은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빵을 달라!》라고 소리 높이 웨치며 싸웠다.

이와같은 시카고 로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제2인터나쇼날 파리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전 세계 근로자들이 전통적으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로부터 5월 1일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명절로 되였다.

그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여러 나

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에 튼튼히 서 있으며 거기에서 자기의 광활한 미래와 승리를 보고 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에 의한 자기의 해방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며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국제주의적 원조 밑에 간악한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꽃피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

특히 제국주의의 원흉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국제주의의 제 원칙에 더욱 튼튼히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하나씩 떼여내 가지고 개별적으로 격파하려고 애쓰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획책을 하면서 반쏘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전 세계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과의 친선 단결만이 우리 강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과거에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자기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삼을 것이며 그 기치 밑에 전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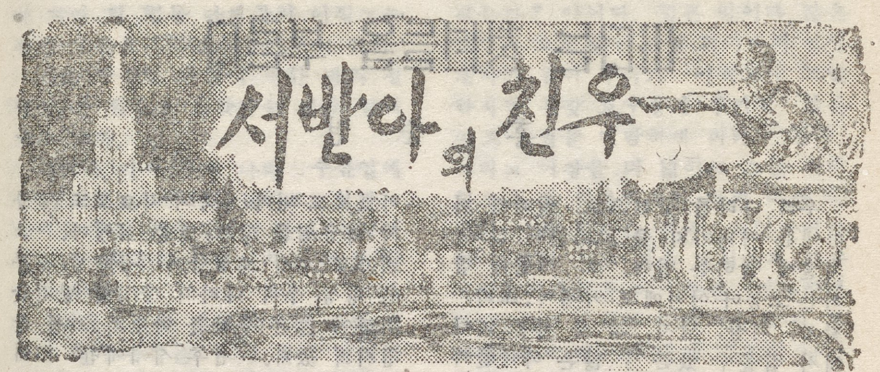
《영원히 쏘련 인민과 함께!》 이 구호는 실로 전 세계 근로자 및 각 사회주의 국가의 단결의 움직일 수 없는 초석이며 동시에 조선 인민의 승리의 담보의 기치이다.

라 근로 인민들은 5. 1절을 인류의 항구한 평화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평화로운 로력 투쟁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또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의 근로자들은 자유와 권리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써 이날을 맞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5. 1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부터이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인 명절 5. 1절을 해마다 민족해방과 근로자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으로써 기념하여 왔다.

오늘날의 우리 나라 북반부 근로자들은 인민 주권의 주인으로써 자기들의 단결된 전투적 력량을 검열 시위하면서 이날을 맞이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 투쟁의 선두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들의 앞길을 그 무슨 힘으로도 제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반아의 친우

한 윤 호

서반아는 여기서 멀고
조선도 여기서 멀다만
우리는 한방에 모였다
서반아의 아들이여!

너는 마드리드 얘기를 들려 주고
나는 평양 얘기를 하여 주고
우리는 로어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 놓았다…

아침엔 같이 뻐스 타고
대학으로 찾아 가고
저녁엔 같이 초청되여
로씨야 동무네집에 놀러 가나니

밤마다 같이
그루지야차도 마시며
친 형제처럼
허물없이 롱담도 하노라!

눈 오는 깊은 밤에 침대우에 누워
얘기에 꽃피울 때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쩐지 당연한 일로 느껴지나니.

다만 얘기가 접없이 헤매는
서울 아낙네에 이르면
너는 일어서 책상을 뚜드리며
리 승만을 저주하고

다만 얘기가 자장가 채 듣지도 못하고
거리에 내던지운 얘기에 이르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
서반아의 부르죠아지를 저주하노라!

아자노여! 이 땅의 현인들은 벌써
사람들이 복되게 살' 길 가르쳤나니
우리는 지금처럼 언제나 같이
그 한길을 따라가자 서로 도우며…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홍 순 권

우리 나라를 삼면으로 둘러싼 바다에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많다. 겨울에 잡히는 명태, 초 여름에 잡히는 고등어 이외에도 가재미, 조기, 갈치, 해삼, 낙지, 김 등 사철 바다에서 잡을수 있는 수 많은 어족들과 수산 자원들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원이다.

우리 나라에서 많이 잡히는 이 물'고기들은 그 영양 가치가 높고 그 맛이 아주 좋다. 또 외국에 얼마던지 수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영양 가치도 좋고 맛도 좋은 그리고 그 자원이 아주 풍부하여 외화도 획득할수 있는 바다의 고기를 보다 많이 잡아야 한다. 동무들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농업은 아직 우리 나라 인민들의 알곡과 육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동무들은 이 물'고기들이 참으로 훌륭한 우리의 식량이며 육류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무들은 또한 이 바다의 자원이 귀중한 우리 나라의 공업 원료로도 되며, 비료로도 되며 가축의 사료로도 훌륭히 리용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항상 우리 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를 발전시켜 왔다. 전후 시기에만 하여도 여지 없이 파괴되였던 어항들과 수산 기업소들을 그 얼마나 복구하였으며 조선소들과 어구 공장들도 그 얼마나 복구 건설하였는가! 실로 오늘날의 우리 나라 수산업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수 있는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날 수산 협동 조합들과 반농, 반어 협동 조합들은 조직, 경제적으로 날로 튼튼해지고 있다. 이들은 전쟁 전에 비하여 기계 어선들을 근 2배 그리고 범선을 1. 3배나 더 가지고 있다. 어류 가공 시설들도 점차 선진 기술로 장비 확장되여 가고 있다. 수산 부문 일'군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사나운 경랑을 헤쳐 조국과 당의 부름에 헌신 분투하는 이들의 장엄한 로력 투쟁도 나날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이리하여 1956년에 와서 국영 및 협동 단체들의 어획고는 전전 수준을 133%나 륭가하고 있다.

이는 수산업 발전에 대한 당의 정책이 전 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수산업에는 성과도 크거니와 결함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수산업이 인민 경제에서 가장 락후한 부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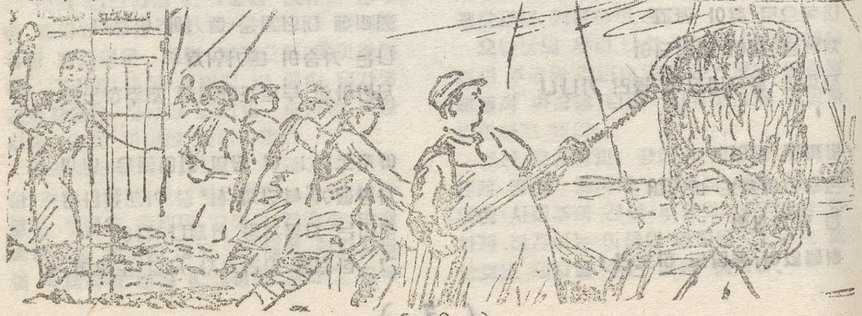
이부문에서는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자기 계획을 73% 밖에 실행하지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금년 1. 4분기 계획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계속된다면 인민 경제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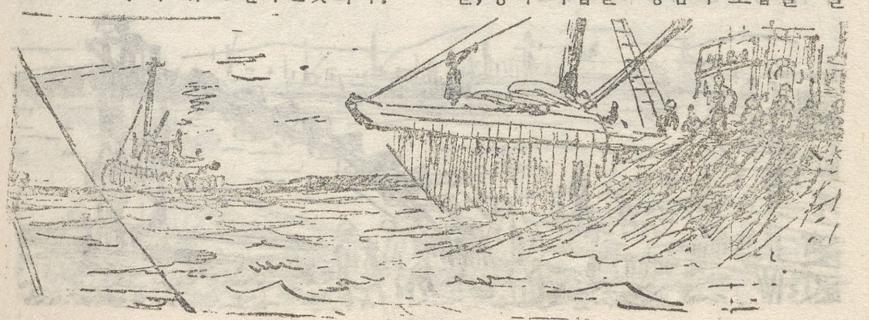
그러므로 최근에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에서는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금후 수산 부문에 나서는 과업과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년산 어획고를 60만톤 이상 높일 것을 내세웠다. 이렇게 되면 인민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질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까운 장래에 인구 1인당 물'고기 배당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로 된다는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아니다. 힘든 일이다. 많은 투쟁이 요구된다.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우리가 이목표에 도달하자면 온갖 보수성과 투기적 낡은 어로 방법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장을 더 넓히고 그를 최대한으로 잘 리용하여야 하며 다종 다양한 어획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크고 작은 어선들과 각종 어망, 어구들을 다 동원 리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엔 하지 못하던 멀고 깊은 바다에 대담히 나가서 잡으며 대규모적인 어업과 중소어업 그리고 세소어업도 광범히 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많은 고기들을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원 회의가 명시한 대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서해 어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최근 1—2년내에 년10만톤 이상의 어획고를 목표로 하고 점차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기계화하며 어장 중심부의 중요섬들에 어로 근거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으로 일은 다되는 것이 아니다. 랭동 시설을 확장하여 가공 및 포장을 잘 함으로써만 인민들에게 질좋고 맛 있는 어물들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수산 자원을 옳게 보호하여 증식시키는 일, 양어 사업을 광범히 보급할 일





등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는 모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가 우리들 앞에 내 놓은 절실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다.

조국은 수산 부문 청년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다로 나가자

조선 로동당은 수산 부문에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지금 수산 부문에는 청년들이 아주 적다. 수산 부문내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률은 겨우14%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나머지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사무실이아니면 가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바다에서 누가 주로 고기를 잡고 있는가? 40-50세가 넘은 나이 많은 어로공들이 고기를 잡고있다. 만일 이러한 상태로 5년10년이 넘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일부 청년들 중에는 어업로동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동무들이 있다. 이들은《배울 것이 없다》, 《바' 줄이나 당길바에야》 하면서 바다를 떠날려고 한다. 또 그런가 하면 어로작업에 단련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시적 난관에 겁을 먹는 청년답지못한 동무들도 있다. 바다야 말로 청년들의 감정과 특성에 맞는 일터이다. 창창한 바다의 재부를 개척하여 이를 전취한 뒤 만선의 개가를 올리며 어항으로 돌아올 때의 그 장쾌감과 영예감은 무엇에 비기랴!

바다야 말로 청년들의 재능과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보람찬 활동 무대인 것이다.

해안 연선과 강'가, 호수가의 청소년들은 장차 바다의 역'군이 되기 위하여 수산업에 대한 당의 정책과 수산 지식을 배우며 신체를 단련하여야 한다.

보수성과 투기성을 반대하자

수산 부문에는 낡은 것을 고집하는 보수성과 투기적 경향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런 현상은 선진적인 어로 방법과 다각적 어획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방해로 된다.

심지어 일부 락후한 곳에서는 선진 어로 기계를 도입할 대신에 비과학적인 미신에 포로되여 점을 치거나 또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있다. 이런 것으로는 고기를 잡을수 없는 것이다. 새 것을 사랑하며 지향하는 문명한 청년들은 이러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수산 부문에 청년들을 더많이 고착시키는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청년들은 새것을 좋아하며 대담하게 새 것을 받아 들이며 보수주의와 락후한 것과의 투쟁의 앞장에 서라》고 호소하시였다. 청년들은 낡은 것과 온갖 미신적 현상들과 융화하지 말고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힘과 경험만 가지고서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수 없으며 전망성 있게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없다.

청년들은 청년 브리가다, 민청호, 청년 발기 초소들을 조직하여 온갖 낡은 것과 무규률한 현상들을 청산하고 당이 부르는 길에서 선구자가 되며 모범을 보이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나이 많고 경험많은 어로공들을 존경하며 그들로부터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들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해석하여 주며 새것과 당이 요구하는 어획 방법의 우월성을 실제 모범을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수산 과학 기술을 배우자

대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은 과학과 기술의 힘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수산 부문 기술 인재 양성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 왔다.

물론 오늘의 수산업은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수산업은 점차 기계화되여 가고 있으며 선진 과학 기술로 장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기술 인재들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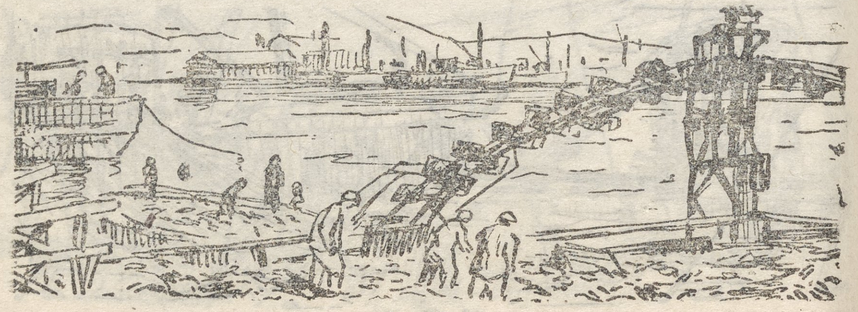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날 공부하고 있는 대학 수산 학부 및 수산 전문 학교, 직공 학교 및 기술 보습반 학생들은 학업 성적을 보다 높이며 실습을 옳게하며, 교문을 떠나 배를 타고 어로 작업을 옳게 지도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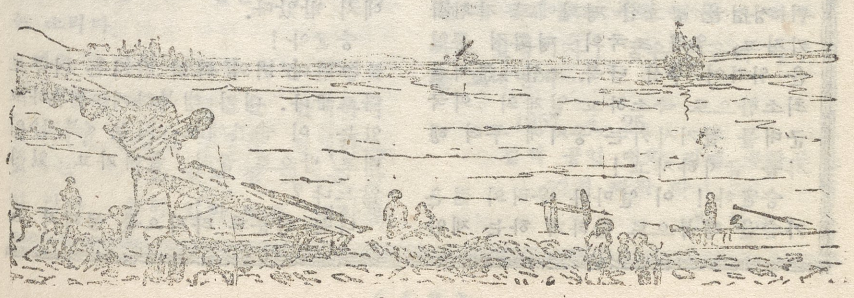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적지 않은 젊은 기술자들이 바다에 나가기를 기피하는 수치스러운 현상들이 엄연히 있다.

우리는 이런 락후한 사상 경향들과 견결히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동무들의 사상 관점을 바로 잡아주며 이들이 기술자로서 어로 로동자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그들을 배워 주며 또 그들에게서 배워 마침내는 새로운 창안과 합리화 제의의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수산 과학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당과 정부에서는 앞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현장에 파견하여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게 하며 대학과 수산 전문 학교들에 통신 강좌를 설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일하면서는 배울수 없다》, 《수산 부문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은 낡은 사상이다. 우리에게는배울 수 있는 넓고 큰 길이 있다. 인내성 있게 기술을 배우며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여 선진 어획 방법들을 능숙하게 도입하여 더 많은 고기를 잡아내자!





너와 나는 총뿌리를 맞댈 수 없다

승균아, 나의 조카야!

이 편지를 네께 직접 부치지 못하고 잡지 《청년 생활》에 공개하는 나의 심정은 한없이 안타깝다.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마저 전할 수 없는 심정—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간직한채 우리 서로가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는지도 어언간 7년째로구나!

그 동안 너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은 어떠하시냐, 이젠 퍽 늙으셨겠지, 애타게 그리워만 진다.

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선언서가 나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 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뜨겁게 생각하였었다. 얼마나 좋으랴!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조국 강토에서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며 자유롭게 일하며 마음껏 배우는 그런 세상은!

조선 로동당은 바로 이런 우리의 희망을 실현화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제의했었다. 즉 우리들은 서로 자유롭게 래왕하고 서신을 거래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자고,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우선 남북 조선 군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일체의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동시에 무력 행사를 금지하자고!

승균아! 이 얼마나 우리의 젊은 가슴을 행복으로 불타게 하는 제안이냐! 나는 이 선언이 나온 뒤인 작년 7월, 인민군 무력의 8만명 축소 때 제대되였다. 나뿐만이 아니다. 1950년 8월에 서울에서 의용군에 같이 입대했던 나의 학우들인, 네가 잘 아는 김 계진, 심 상주, 김 동식 동무들도 함께 제대되였고 제대되자 우리는 자기의 희망에 따라 김 일성 종합 대학, 송도 정치 경제 대학, 김책 공업 대학에 각각 편입하였다.

서울 대학 재학시엔 학비에 쪼들려서 끝내 1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내가 지금 여기 평양에서 김 책 공업 대학에 다니니, 어머니가 들으시면 꿈인가 하실께다. 국가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남조선에서는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특히 나와 같이 남반부에서 온 학생들은 내각 결정 40호와 7호에 의하여 일체 학용품들과 옷을 무상으로 받으며 장학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단다. 나는 제대할 때만 하드라도 무의무탁자라고 하여 2만원의 현금과 옷 일체를 한벌씩 더 국가에서 받았다.

승균아!

그런데 너와 나의 처지는 너무도 다르구나. 내가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는 《북진》의 대포'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신문과 라지오를 통해서 그리고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조선과 너이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전쟁의 무서운 불'길 속에서 3년간 모진 고통을 받아온 우리 조선 사람치고 류혈적인 새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리 승만 도배는 어떻냐? 놈들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북진》을 떠벌이면서 조선에 새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승균아! 놈들은 우리 나라를 다시금 전쟁의 불'길 속에 쓸어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하려고 너나 너의 동무들을 《국군》에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말라!

나는 네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너와 나는 같은 피를 가진 형제다. 그런데 네가 나의 가슴에 어떻게 총뿌리를 들여 댈 수 있으며 나의 피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소리다.

나는 요사이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놈들의 강제 징집을 반대하여 집체적인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 못드는 밤이 많다. 특히 인하 단과 대학생들이 40여 일 동안이나 동맹 휴학하였고 또 서울 법과 대학생들도 그런 투쟁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른다.

그렇다, 너와 나는 총뿌리를 맞대고 싸울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불행 속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한가정에서 단락하게 살아야 하며 너는 나처럼 배움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네가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을 반대하여 굴하지 않고 싸울 때만이 가능하다.

승균아! 원쑤들의 강제 징집을 파탄시키라. 《국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 너의 손에 얽히는 치욕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라.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수백만 청년들이 너이들의 그런 용감한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투쟁의 앞장에 서라!

그리하여 우리들이 뜨겁게 포옹할 그 광휘롭고 복된 날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자! 굳은 마음의 악수를 보내면서…

1957, 4, 25

김책 공업 대학 기계 공학부
기계 제작 학과 2년
박 일준

그들은 해방되여야 한다

백 상 법 ▽

얼마전 개성에서 의거 입북한 전 남조선 《국군》 장병들을 위한 환영 대회가 열리였을 때였다. 이날 저녁 나는 국영 려관 2층에서 의거 입북한 동무들과 만났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자 곧 친숙한 사이가 되여 서로 기탄 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환영 회의 때 내가 그 어떤 애끓는 사연이 엉켜 있으리라 느꼈은 애티가 아직 남아 있고 키가 작으마한 박 만복 동무만은 어쩐지 우리들의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이였다.

나의 마즌편 의자에는 키가 후리후리한 검은테 안경을 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 청년이 만복 동무에게 말을 건넸다.—만복이 왜 가만히 있나. 지나친 환영을 받고 너무 흥분했나?—

—…………—

—그럼 고향 생각을?—

—………— 만복 동무는 한참후에야 손'등을 눈 가장자리로 가져 가면서—아닌게 아니라 집 생각이 간절하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는 경상북도 태생입니다. 어렸을때 일은 잘 모릅니다만 저의 집에서는 대대로 민가란 지주네 소작 살이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쟁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아니 세상을 떠난것이 아니라 민 지주와 미군놈들이 저의 아버지를 죽였답니다.—그는 흘러간 먼 날의 그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을 회상하는 듯 수양 버들이 흐느적거리는 들창 밖을 내다 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 지주는 경찰 서장과 군용 도로 공사에 나가라는 동원장을 받은 저의 아버지에게 이미 은당이 있었다고 하면서 걱정말고 어서 섶이나 치려 산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어머니의 륵막염과 황달병 때문에 우리 집에선 민 지주한테서 돈 8천환을 돌려 쓴 일이 있는데 놈은 그 대신 매일처럼 저의 아버지에게 섶을 치게 하였지요. 그런데 경찰 서장과 은당은 무슨 은당입니까? 그날 아버지는 섶을 치려갔다가 순경놈들에게 붙들려 미군 헌병대로 끌려 갔지요. 죄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고해 바치면 미군놈들이 상금을 주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미군 헌병대에서 10일간 류치장 살이를 하다가 산 비탈을 깎아 내리는 《군용 도로》 공사판에 내몰리웠습니다. 아, 생각만해도 몸서리칩니다.

미군놈들은 산 꼭대기에 기관총을 뻗쳐 놓고 그 벼랑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라면 불을 달아 놓고 급히 몸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깎아 세운듯한 벼랑이였으니…그



러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나무 뿌리를 휘여잡고 벼랑밑으로 떨어질 작정으로 불을 달러 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폭발과 함께 그만……

만복 동무는 말을 맺을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였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조차 괴로웠다. 만복 동무는 담배를 부쳐 문 후에

—어머니도 3개월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하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팔자 타령을 잘 하군 했지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도 그저 우리 집은 팔자가 궁해서 못사는 줄로만 알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겐 있습니다. 하루는 누이 동생 만옥이와 내가 고사리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방안에 들어 오시지도 않고 무엇인가 혼자 잡숫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부엌을 내다보고 있던 누이동생이 부르기에 저도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머니는 그저 맨 고사리만 까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만 목이 칵 메서 고사리 죽 그릇을 놓은채 뒤'동산으로 올라가 온 종일 울다가 저녁때야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만복이는 또다시 말을 끊고 말았다. 그리고 담배를 손끝으로 갈갈이 뜯고 있다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마저 돌아 가신 후부터 민 지주네 머슴'군이 되였습니다. 그때 민 지주는 우리 오누이를 퍽그나 동정하는척 했습니다. 나종에 알게 되였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리'속을 채우려는데 있었지요.

<만복아! 너의 오누이를 내가 친자식 처럼 돌봐 줄테니 걱정말아라> 이렇게 민 지주는 말하면서 아버지가 빚진 돈도 면제해 주었으며 제가 크거들랑 자기의 땅도 얼마간 떼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을 곧이 들었습니다. 아직 철 없는 때였으니까요.

우리 오누이는 민 지주네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국군》에 징모되였는데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치가 떨립니다. 저는 징집 년령이 되기전에 《국군》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으니까요.

민 지주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을 네다섯개씩 갈아대면서도 아들은 명섭이란놈 뿐이였지요.

민 지주가 하루는 저를 사랑'방에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드니 놈은 무슨 큰 일이나 있는듯이 헛기침을 하고나서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만옥이를 여지껏 돌봐줬으니 이젠 너도 내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군 징집 명장》을 내 앞에 내 놓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명섭이한테 내려 온 징집 명장인데 네가 내 아들 대신으로 나가 준다면 만옥이도 후하게 기르고 또 네가 제대되여 온 다음에 자농을 할 수 있게 땅을 떼여 줄테니 가부간 선뜻 말을 떼는 것이 좋을듯 하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남반부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돈이나 있는 부자놈들은 순경놈한테 뢰물을 먹이고는 제놈들의 아들 대신으로 머슴은 두말할 것도 없고 빚진 집 자식들을 내 보내군 합니다. 그때 나는 거절하기 보다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철 부지인들 어찌 《국군》에 끌려 나가는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민 지주는 내가 불응한다는 눈치를 알자 <그렇다면 좋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성을 발끈 내였습니다.

제가 만약 민 지주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오누이의 신세는 거지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동생이 한 없이 불상하였습니다.

저는 사흘후에 떠났지요. 떠나갈때 민 지주는 돈 2천환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울적한 마음으로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누이 동생 만옥이가 그 추운 겨울날에 나를 좇아 오질 않겠습니까.

누이 동생은 20리나 되는 길을 좇아서 기어이 나를 따라 가겠다고 합니다. 누이 동생은 정거장 홈에까지 따라 나오면서 그냥 울어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누이동생을 붙들고 목청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란 무정하더군요. 누구하나 우리 오누이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울면서 <만옥아 내가 이제 돌아오면 잘 살게 된다. 응 울지말아 응…>라고 말했지요.

《국군》 징집에 끌려 나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저도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론산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새벽이였습니다. 곧 우리들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갈아 입을때 민 지주가 준 돈을 꺼내서 갈아 입은 《군복》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교놈이 그 돈을 보고 《군대》에서는 돈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까. 민 지주가 준 돈은 결국 그놈한테 빼앗기고 말았지요.

몇개월이 지난후에 저도 《국군》에 정식으로 배치되였습니다. 《국군》은 군대기 보다도 생지옥이였지요. 짐승을 다루듯이 하는 《기압》과 고역도 말이 아니거니와 배가 고픈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였지요. 그러나 총검의 위협앞에서 우리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거듭되였습니다. 복역 기간을 마친 저는 《제대》되였습니다. 《제대》되자 저는 다시 민 지주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누이 동생이 거

기에 있었으니까요. 민 지주네 집에 당도하자 나는 약속대로 땅을 내라고 울렀습니다. 민 지주는 처음에는 약간 망서리는 기색이였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며칠이 지나자 지주놈은 땅을 주는건 고사하고 그런 소릴 하면 나의 운명이 더욱 험악해 지리라고 장담하더군요.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 순경놈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순경놈은 저에게 《국군 징집 령장》을 내미는 것이였습니다. 이번 《징집 령장》에는 저의 박 만복이란 이름'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 지주는 그때 혀'바닥을 내밀고 보라는 듯이 웃어대면서

<이번이 진짜 네 앞으로 나온 령장이야! 히, 히, 히…>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전신은 사시나무처럼 떨리였습니다. 두번째 《국군》에 나갈때 우리는 반쯔만 입고 세사람씩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누가 도망을 치면 손을 붙잡고 가던 사람들에게 련대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나의 누이 동생은 아홉살이였습니다. 누이 동생은 아우성을 치면서 제가 끌려가는 정거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애처럽게 울던 누이 동생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지금 더러 꿈속에서 신음한답니다.

기차가 떠날때 누이 동생은 어느 틈에 새여 들어와 홈에까지 달려 나와 오빠! 오빠! 하고 울부짖고 있었는데 순경놈이 달려 들어서 누이동생을 내떠치지 않습니까? 아! 그 망할 자식들……

미군놈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선 형편이 바로 이렇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론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해저물녘에 야외 훈련에서 돌아 오고 있는데 도중에 있는 한마을이 떠들석 하지 않겠어요. 총소리도 나고……. 그래 우리는 거기로 갔지요. 그런데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거던요. 미군 졸병 여러놈이 짚차우에서 총뿌리를 마을 사람들께 돌려대고 있고 한 십여 명 되는 마을 사람들은 괭이며 작살을 들고 무섭게 미군놈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푸드득대고 있는 짚차옆엔 한 할머니가 방금 쓰러졌는지 주위를 퍼때닥질하면서 손끝으로 땅을 후비며 신음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숨을 끊고 말았는데 나종에 안즉 미군놈들이 그 할머니네 닭 우리에 뛰여 들어 닭



을 수십마리나 략탈해 가기 때문에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짚차에까지 따라 나왔었는데 놈들은 그를 사격했던 것이지요.

이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한지 아십니까. 미군 졸병이 우리 소대장을 보고 뭐라고 짖거리니까 소대장 녀석은 우리 사병들을 보고 짚차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합디다.

그러나 사람들은 헤여질 대신 오히려 어성을 높이며 짚차에로 다가서더군요. 한 로인은 심지어 <이 녀석 들아, 네놈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냐? 저 미군놈들께 총 뿌리를 돌려라!>

하면서 작살로 우리를 후려치기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그 로인은 우리 소대장 녀석 총에 맞아 쓸어졌지요……

《국군》이란 바로 이처럼 미군의 개밖에 되지 못하지요. 저는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방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만복이는 몸을 가벼히 일으켜 창문가로 다가 서면서 남쪽 하늘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한참후에

—기자 선생님 남조선 청년들은 모두가 나의 지난날처럼 불행을 겪고 있답니다.

제가 이리로 넘어오기전만해도 숱한 청년 학생들이 징모되여 훈련소로 끌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내가 걸어온 그런 길보다 조곰도 낫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들이 한없이 가여워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들이 《국군》살이를 해야됩니까.? 미군놈들의 개로 그리고 군복 입은 노예로 험악한 나날을 한숨속에 보내야 할 그들의 운명보다 더 불행한 그런 운명이 온 지구상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하고 격동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겨레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파쑈 통치하에 더는 그냥 둘수 없다는 것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렬하게 느끼였다. 그들이 한시 바삐 생지옥에서 해방되여야 하겠다는 것을……

남조선에서

서로 잡아 먹기

리 승만의《중앙 고등 군법 회의》는 지난 17일 《김 창룡 암살 사건》의 책임을 지워 괴뢰 룩군 《제2군 사령관》이였던 강 문봉 《중장》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기타 4명의 현역 장교들에게 각종 형기의 징역 언도를 내렸다.

《김 창룡 암살 사건》이란 작년 1월 30일 괴뢰 륙군 《특무부 대장》 김 창룡이 출근 도중 군복을 입은 두 청년의 권총 사격을 받아 죽은 사건이다. 리 승만이 각별히 신임하던 김 창룡에 대한 암살은 리 승만 도배에게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리 승만 도배는 이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벌써 지난해에 괴뢰 룩군 《서울 지구 병사부 사령관》이였던 허 태영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기타 1명의 《장령》을 포함한 4명의 현역 군인들과 1명의 야당파 소속 《국회》 의원 및 기타에게 사형, 무기 등 각종 징역을 언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국군》의 소위 수뇌부가 서로 제놈들끼리 잡아 먹기를 일삼으며 괴뢰군이 분렬과 자멸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 실기

눈속에서의 사흘



글. 김 영 수　　그림. 현 재덕

모래 같이 깔깔스러운 눈보라가 창덕이의 얼굴을 사정 없이 후려친다. 그럴때 마다 그는《후 후》하며 숨을 미쳐 톱지 못한다. 털모자의 가장자리에도 눈섭에도 손'가락 같은 고두름이 얼어 붙었고 사과알처럼 붉던 그의 뺨도 이제는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손끝과 발끝도 알알하던 감각마저 완전히 잃고, 그저 딴딴하기만 하다. 가끔 손끝을 입안에 쓸어 넣고 녹여 보나 그래도 정녕 감각을 모르겠다.

—아마 완전히 얼어 버린 모양이지! 게다가 배는 왜 이렇게 고플까? 그래 벌써 옹근 하루를 굶었으니! 그럴 밖에— 창자는 마치 항의나 하듯이 식욕으로 하여 꿈틀거린다. 그럴때마다 배는 고프다기 보다 쓰리고 아프다. 가끔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도 졸음이 몰려 온다. 눈이 저도 모르게 스르르 감겨진다. 파랗고 빨간 꽃무늬들이 눈앞에서 어른 거린다. 그러다간 후닥닥 정신을 차리고 가시 철조망이 거미줄처럼 칭칭 감긴 토성을 주시한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람, 언젠가 최 대장은《정찰원의 눈은 유격대의 눈이며 인민의 눈이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나의 눈이 감겨지는 걸 유격대와 인민은 용서하지 않을 께다.

그리하여 창덕은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이렇게 창덕이가 금창부락 적정을 정찰할 임무를맡고 이부락 앞산 눈속에 구뎅이를 파고 백포로 위장하고 앉아 있은지도 만 이틀이 된다.

그의 귀엔 아직도 자기가 정찰하러 나오던 때 하던 최 대장과 공청 책임자의 말이 쟁쟁하다.

그날 (이틀전) 최 대장은 자기의

군영 본부(軍營本部)에 창덕이를 불렀었다. 항일 유격대의 우수한 아들의 한분인 그는 창덕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걸상 대용으로 가로 놓은 나무 토막에 앉힌 다음 입'가에 미소를 담고 말했다.

—창덕 동무는 이젠 공청원이라지?

—네

—축하하오. 그러니 소년 선봉대 때보담 배나 더 잘 싸워야 하지. 그럼 동무에게 첫 과업을 주겠소.

창덕은 전 신경을 바눌끝처럼 도사리고 주의를 집중시켰다.

—당의 영예로운 후비대인 공청원으로서의 첫 위임— 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인가?

최 대장은 지도를 짚으며 임무를 말하시였다.

—동무의 할일은 여기 훈춘(琿春)에서 머지 않은 금창(金倉)부락에 대한 정찰 과업이요. 이 금창 부락은 목재와 금의 산지요. 그래서 왜놈들은 지금 《목재 공사》요, 《채금회사》요 하는 따위의 오가잡탕을 벌려놓고 이곳 자원을 략탈하고 인민들을 밤낮없이 강제 동원하여 못살게 굴고 있소. 놈들은 이 곳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탓으로, 또 인민들을 강제 로동에 동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경비대와 관동군, 정규군까지 주둔시키고 있소. 그리고 부락 주변엔 높은 토벽을 쌓고 삼엄한 경계망을 치고 있다고 하오. 우리 유격대가 무서웠기 때문이요. 아무리 그렇다고한들 토벽은 고사하고 철벽이라도 우리 유격대의 심장을 막지는 못할 것이요. 우리 유격대는 작년(1934년) 조선 혁명군으로 개편된 이후 그 대오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금년(1935년) 5월, 조국 광복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인민들 속에 자기의 뿌리를 박고 있소. 동서 고금에 이런 유격대는 불패하는 법이라오.

이번에 우리의 금창 부락 습격전은 승리할 것이요. 김 일성 장군께서도 이 전투에 지대한 관심을 돌리고 계시요. 때문에 동무의 이번 정찰 임무 수행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알만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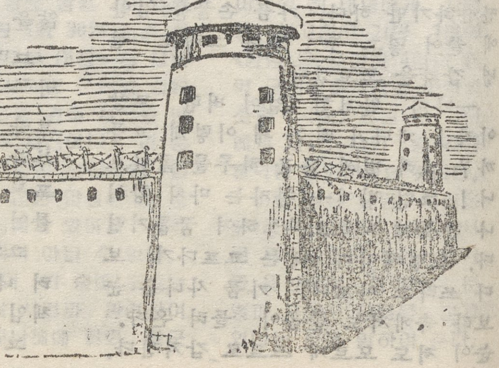
—넷 알았습니다. 공청원의 이름으로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좋소! 나는 동무를 믿소.

그날 공청 책임자 동무와 언제나 해사한 채 아저씨도 자기를 배웅하며 말하셨다.

—명령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네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인민의 고통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정찰원은 항상 인민들께 의거해야해!

그리하여 창덕은 지금 이 부락 앞산 눈속에 전호를 파고 있다. 그는 소년 선봉대 시절같으면 거지 아이로 변장하고라도 놈들의 보초선을 통과할수 있으나 이제는 제법 어른



티가 나는지라 그런 일을 서투리 하다가는 오히려 덫을 찾아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비교적 토성안이 잘 엿보이는 이곳에서 적정을 료해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을 안은 높은 토성으로 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알아 맞힐 수 없었다.



그는 안타까왔다. 게다가 추위는 생명을 위협하며 팔다리의 매디매디를 얼구고 놈들의 《봉쇄정책》(집단 부락 정책으로 인민들과 빨찌산들의 련계를 끊고 군량과 피복에서 빨찌산들을 고립시키려는 왜놈들의 정책)으로 하여 조금 가지고 떠났던 미수'가루마저 떨어졌고… 그러나 아직 임무는 완수 못했다.

× ×

적구에 또 다시 밤이 깃들었다. 날씨는 여전히 맵짜나 눈보라는 멎고 하늘엔 얼어 붙은 뭇 별들이 총총하다.

그가 잃었던 정신을 되 찾았을 때는 벌써 북두 칠성이 거꾸로 매달렸다.

—그렇다. 죽어도 명령을 완수한 후에 죽어야지—하고 생각하며 입'술을 지긋이 깨물고 있던 그에게는 문득 아버지의 유품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조선으로 올때 가지고 떠났다는 조선의 흙— 고향의 흙—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땅을 밟아 못보고… 그는 언 손으로 협낭 속에 간직한 흙을 꺼내 펴본다. 확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 아—고향, 봄, 진달래 피는 언덕, 어느듯 그의 마음은 은하수에 배를 띄워 남쪽으로 남쪽으로 달려 간다. 그리고 사지는 꽁꽁 얼어 들건만 마음 속엔 따뜻한 봄이 깃든다.

—우리 유격대가 만일 앞으로 두만강을 건너 고향을 해방시키는 날엔 그저 내손으로 왜놈들과 지주놈들을 몽땅 때려 죽이고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테야. 마을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재덕에단 커다란 학교를 짓고 병원도 차리고, 연극단도 만들어 가난한 고향 사람들을 몽땅 잘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 화려한 조국의 앞날이 눈앞에 간절히 어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활활 타 올랐다. 그는 얼어든 팔다리를 힘써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에 맞춰 움직이기도 하고 얼어든 손'가락으로 열심히 문지르기도 했다. 그러니 몸이 좀 훈훈해지는 듯 했다.

—래일 까지에는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적정을 전부 료해해서 보고해야겠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야지— 서켠산에 하현달이 희미한

게 걸리고 동녘 하늘이 훤히 터오기 시작한다.……저 동터오르는 동녘하늘은 우리 조국의 앞날이요, 서산에 지는 쪼각달은 왜놈들의 운명이로다—이렇게 생각하며 창덕은 빙그레 웃었다.

× ×

창덕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드래도 성안으로 기여 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토성 밖에서는 암만해도 이 이상 더 소상히 정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성안으로 들어 간다는 것은 어려웠다. 게다가 만 이틀 동안이나 한지에서 꽁꽁 언 몸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한낮이 기울어서야 왜놈 헌병대에서 발행한 통행증을 가지고 이웃 집단 부락에 할머니의 병문안을 갔다 온다는 달구지'군 소년을 만났다. 소년의 람루한 옷차림에서 그 무엇을 읽은 창덕이가 구뎅이에서 몸을 추켜들고 그를 부르자 그는 희안한 눈초리로 창덕이를 바라다 보면서 슬슬 다가 왔다.

—애야, 날좀 살려다우!

시간을 오래 끌수 없는 창덕이는 맞대 놓고 구원을 청했다. 그가 달구지우의 궤짝안에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을때 소년은 다시 한번 놀라는듯 하였으나 그는 묻지 않았다.

소년의 큰아버지와 어머니는 왜놈들의 략탈 행위에 항의하였다고 해서 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되였었다. 그래서 소년의 머리엔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항상 있은데다 요사이는 그 왜놈들을 족쳐대는 조선 군대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소년의 눈에 창덕이가 바로 그 조선 군대의 한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캄캄한 궤짝속에서 창덕이에겐 달구지 바퀴의 덜크덩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보초의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뭐 여기 통행증이 있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서 왜놈 보초는 총창끝으로 궤짝을 쿡쿡 찌른다. 그러자 소년은

—없어요. 왜 남 궤짝을 못쓰게 만들어요… 야무지게 쏘아 붙이고 그냥 달구지를 몰면서 달구지 우의 조그만 보따리에서 떡을 몇개 꺼내 보초에게 던져 주었다.

× ×

무사히 마을에 들어간 창덕은 토성안에 있는 조국 광복회원들의 연줄로 놈들의 적정을 손'금처럼 쥔후 무사히 토성을 빠져 본영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정찰 재료에 의하여 부대가 금창 부락 습격을 가든 날이다.

창덕은 최 대장 앞에 섰다.

—나도 꼭 습격전에 참가시켜 주십시요.

—동무는 좀 쉬여야겠소. 그 발을 가지고서는?……

—대장 동무! 참말입니다. 꼭 참가시켜 주십시요. 불타는 이 심장은 나의 언 발을 꼭 녹여 줄겝니다.

이리하여 그는 금창 부락 해방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우들은 지극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달구지를 만들어 금창부락까지 그를 실어다 주었다. 몸에 열이 확확 울랐으나 그는 신열이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자기를 습격의 대오에서 제외할까 해서였다.

…깊은 밤 성문을 깨뜨리고 돌격

이 감행되였다. 그때 전우들은 돌덩이 처럼 언 발을 가지고 비호처럼 돌격의 맨 앞장에서 달리는 용감한 창덕이를 보았다. 그것은 실로 초인간적인 기적으로 불사신으로까지 생각되였다.

× ×

간고하고도 격렬한 전투끝에 마을은 해방되였다.

토성안의 인민들은 밤 바다처럼 웅성이였다. 그때 창덕은 자기 앞에 차렷 자세로 선 달구지'군 소년을 발견하였다.

—유격대원 형님, 저는 10명의 동무들을 모았습니다. 소년 선봉대에 받아 주시요. 소년은 이렇게 보고조로 말했다.



그의 등뒤엔 일렬로 늘어선 소년들이 헤벌죽하니 웃고 있었다. 창덕은 소년을 끌어 안았다.

—난 그때 형님을 유격댄줄 알았어요.

—뭐?

—보문 알지요 뭐.

—그렇지만 난 아저씨가 걱정할까 우정 모르는척 했거던요. 물어보지도 않고 부락에 들어 가서도 비밀을 굳게 지켰어요… 부락민들 속에도 간혹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요… 얘들아, 그렇지,

—그렇구 말구 저— 지주놈과 그 앞잡이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지요. 아저씨?

아이들이 일제히 화답했다.

—애야!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허락하시겠는지?

그때 옆에 섰던 구레나루 중년 사나이가 말참견했다.

—내가 그애 아버지라우. 어서 데려가슈… 아니 나도 받아주우—이리하여 새로 보충된 유격대는 부락을 떠났다.

최후의 결전을 맞으러 가자!
생사간 운명의 판가리다.

노래 소리가 밤하늘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그 노래속에도 창덕이의 목청이 더욱 되알지게 울린다.

젊은 심장을 불태우는

로탄부의 이야기



여 호필 아바이는 공화국 공훈 탄부이며 사동 탄광의 한 브리가다장이다. 아바이는 언제나 싱글 벙글 웃기를 잘 해서 직장에서는—참 좋은 아바이야—라고들 부르고 있다. 그는 좀체로 성낼줄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아바이가 웬 일인지 한 젊은 로동자를 버력산 옆에 앉혀 놓고 꾸짖기 시작한다. 이마 우에 내려드리운 숱 많은 머리 카락이 바람 결에 하늘거리는 그 젊은 로동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톱으로 가느다란 나무 꼬쟁이를 똑똑 분지르기도 하고 입'술을 지긋이 깨물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결근도 잘 하여 어떻든 말썽이 많은 동무라 한다. 그는 오늘 아침만 해도 간밤에 마신 술이 얼근드렁 취한채 한 시간씩이나 늦게야 출근했였다. 그래서 지금 아바이가 타이르는 중이다. —여보게! 자넨 왜 그 모양인가? 벌써 브리가다 회의나 민청 회의에서 얼마나 비판됐기에……좀 시정된듯도 하드니만 또 그 모양이로군. 정말이지 난 자네가 그럴때마다 자네 아버지의 친구로서 또한 오랜 로동 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네. 도저히 참을 수 없단 말이야. 난 그래두 자넬 그렇게까진 믿지 않았네. 자네두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내 오늘은 직접 그 이야기를 좀 자네에게 소상하게 해야겠네…

아바이는 문득 왕참대 같이 굵게 매디진 그 두툼한 손을 젊은이 앞에 내보이며 말한다.

—자네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 탄광에서 희생될 때 이 손으루 그 피 묻은 시체를 안아다가 안장했느이. 우리 두 사람은 어릴적 부터 함께 일하여 그야 말로 막역한 사이였지! 여보게! 그때 자네 아버지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일을 했는지 자네 같이 젊은 것들은 원 상상도 못할꺼야. 그 때엔 각 갱구마다에 틀문이란게 있었네. 즉 로동자들을 굴 속에 몰아 넣고는 퇴근 시간까지 그 틀문에다 커다란 자물쇠를 덜컹 채워 놓았었다네. 그렇게 되고 보면 탄광이란게야 그야말루 철창이 달린 커다란 감옥과 매한가지였지.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그 때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로동자들은 하루에 맞대거리(2교대를 말함)로 열두 시간씩이나 징역살일 했었지! 그러니 놈들의 로동 시설이랑게야 정말루 한심했지. 동발들이 썩어서 천정이나 탄벽이야 무너지든 말든 놈들은 그런 것엔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네 아! 그 놈들이야 말하기를 로동자들 한 사람쯤 죽는게야 자기들께 손해 갈 배 없지만 탄 한 차 못캐는 날엔 그 만큼 자기들 재산에 축간다는 거그던, 또 말하기를 하찮은 로동자들 생명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동발 한대 갈아대는 품이면 탄 한덩이라도 더 캐는 것이 자기들께 더 리'속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 탄광 설비에 대해서 등한할 밖에……그 당시 우리 사동 탄광에서만 해도 매일 붕괴된 탄'더미 속에서 두 세명 시체들을 파내는 판이였네. 갱내 까스 폭발을 방지할데 대한 안전 대책도 전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네 아버지서껀 잘 못된 날만 해도 까스가 폭발하여 단꺼번에 30명 로동자가 몰살당했었네. 난 그 때 바로 그 결굴에서 일했드랬는데 갑자기 온 갱구를 뒤 엎는 듯한 요란한 폭음이 들리지 않겠나……까스 폭발이로구나…하는 생각이 번개 처럼 머리에 피뜩 떠오르면서 가슴이 덜컹 내려 앉두군. 그리고 대번에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드군. 곧 바로 몇몇 동무들과 함께 현장엘 달려가 보았네. 온통 새까맣게 된 30여 명의 시체가 이쪽 저쪽에 딩굴고 있더군. 참 끔찍도 했지. 아—그리고 그 속엔 나하구 어릴적 부터의 망아지 친구이던 자네 아버지가 있드란 말일세! (로 탄부는 쇠'망치 같은 주먹등으로 눈'시울을 훔친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각금 한 사람씩 자기 동무들의 시체를 까스로 하여 무너져 내린 탄'더미 속에서 끌어 내려 하였지. 그런데 그 때 이 소문을 듣고 현장에 달려 온 《오—구례》란 발발이 광주놈은 눈'살을 찌프리며 소리치지 않겠나. —이 시체들은 우리 회사에서 처리할 터이니 너이들은 어서 쉬지 말고 일이나 해라—구 말이야! 우리들은 어지간히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런 일이야 어련히 회사에서 해 주겠거니 하고 그 자리에서 해여졌드랬지. 그런데 그 날 저녁 알고 본 즉 놈들은 이 시체를 파 내는데 로동자들은 한 사람도 동원될 수 없으니 그의 가족들이 와서 직접 파가라는 거야. 만일 이런 일에 로동자들까지 동원 된다면 자기들 채탄량이 그만큼 미진다는 리유에서 그랬지. 그러니 생각해 보게. 슬픔으로 하여 목이 메고 가슴이 터지는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치룰 수 있겠나. 그저 갱구 앞에 수 많은 녀인들이 우글우글 몰려 와서는 땅을 치면서 죽은 내 아들을 내 놓으라, 남편을 내 놓으라 하고 곡성만 높을 뿐이였지. 그래서 우리 로동자들은 모여서 이러 저러하게 의논한 끝에 회사측에 이렇게 요구했드랬지.

—이번 일는 회사측에서 갱내 안전

설비를 잘 못해서 발생한 사고인 것만큼 이 책임은 응당 회사측에서 져야 하며 회사측 비용으로 그들의 장례까지 치루워 주어야 한다—고 그러나 또 놈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하겠지.

—이놈들아！너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시비를 걸겠거들랑 그런 놈들은 말짱 우리 탄광에서 나가라！ 네 놈들이 아니락두 지금 우리들은 인부가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다.

그래서 드디어 분노가 화산 같이 터진 우리 로동자들은 모두가 한 뭉치로 되여 놈들의 사무실로 밀려 가서 곡괭이로 책상이며 걸상들을 마구 닥치는 대로 찍어 엎는 한편 《오—구레》란 놈의 멱살을 쥐여 흔들며 소리쳤지.

—좋다. 네놈들이 진정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 로동자 전체가 이 시각부터라도 당장 일을 그만두마！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모자라나 두고 보자. 그 대신 이 놈아！ 장례비를 당장 내 놓테냐 못 내놓테냐！



드디여 겁에 질린 놈이 벌벌 떨며 우리 앞에 항복했다네. 덕분에 그때 30여 명 로동자들의 시체는 말짱 회사측 비용으로 안장되였고 나도 피눈물을 먹음으며 내 이 손으로 자네 아버지 시체를 날라다가 산에 모셨네.

자네 아버지는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네！그러니 여보게 어찌 이런 슬픈 일이 자네 아버지에게만 있었겠나！그때 당시 모—든 로동자들의 공통된 불행이였네. 바로 나의 가슴에도 그런 아픈 상처는 지금도 옹치로 맺혀 있다네. 왜정 때 우리 로동자들의 생활이란게 어찌나 각굴하였던지 우리 어머닌 그닥 대수롭지도 않은 병을 약 한첩 못써 보고 세상을 떠나셨네. 병이란게 원래 잡수신게 언천 체기여서 약 몇첩이면 알아 볼 것이였지만 나물 죽, 소금국이 상 팔자인 찢어질 가난 속에서 어디 돈이 있어야지. 나는 아들의 심정으로 하도 민망해서 병원엘 어머닐 모시고 갔드랬지. 그런데 그때 병원 의사놈은 우리 모자 간의 초라한 옷차림들을 코' 등에 건 안경 넘어로 주루룩 훑어 보드니

—여보. 여기는 그무슨 자혜 병원도 아니고 당신들 같은 로동'군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병원도 아니란말이요. 내 원 당신들 같은 사람들께서 약값이란 한번도 체연히 받아본 일이 없소. 떼워 본 일은 많았어두……어서 나가오.—하며 벌벌 사정을 다 해 봐도 소용이 없드군. 나는 그때 현관 문을 되돌아 나오면서 어머니의 긴 한숨 소리를 들으니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정말 피고름이 줄줄 흐르더군. 건네나 어머니는 며칠 후 사망하셨네. 만일 지금처럼 사회 보험 혜택이나 입어 무료로 척척 치료해 주는 때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그 뿐인가！ 그때 당시엔 우리 로동자들이 먹고 입는 것두 형편 없었네. 오동짓달 설한풍 속에도 호'잠뱅이를 입고 일했으며 심지어 신발 조차 내주지 않아서 짚신을 삼아 신고 질쩍질쩍한 갱내 작업을 한 형편이였네. 쌀 배급이라야 호미 좁쌀에 대두박을 섞어서 겨우 2홉3작씩 타 먹었다네！ 더우기 기술을 배운다거나 영화를 보는 것 따위는 꿈조차 꿀 수 없었고……게다가 로동자 열명치고 십장이니, 감독이니, 도감독이니 하는 온갖 나부랭이들이 평균 두세명씩 따라 다녔는데 우리 사동 탄광엔 심지어 헌병놈들 까지 두놈씩이나 와 있어서 쩍 하면 로동자들을 불러다 때리구, 게다가 청부 업자들이니, 광주니 하는 치들이 로동자들의 임금을 잘라 먹고 고리 대금업으로 뜯어 먹는 그야말로 무법 천지였다네. 한마디로 말하여 그 때 놈들은 우리 탄부들을 부려먹고, 속여 먹고, 떼 먹고는 싫것 때리다간 내중엔 석탄 버럭 속에 생매장하는게 일이였지.

여보게！그러나 오늘 날의 로동청년들이야 말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중에서도 《중공업의 식량인 검은 금덩어리》를 캐는 우리 탄부들의 생활이야 말로 더 말할 나위 없이 영예롭고 행복한 일이지. 하루에 특배까지 합쳐 1키로 2백의 옥백미에 육류와 기름까지 주지, 일은 일곱시간 밖에 하지 않지, 겨울엔 솜 옷을 주지, 또 글과 기술을 배워 주며, 우리 탄광에만 해도 커다란 영화관과 진료소가 있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당과 국가에선 로동 안전 시설에 커다란 배려를 돌려 주지, 글쎄 이 이상 더 영예로운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나이는 비록 인생 50의 고개를 바라보건만 마음만은 영원한 청춘일세. 그런데두 자넨 도대체 뭐이 부족해서 그 모양인가！응

여보게！ 아무런 우리 로동 계급과 자네 아버지의 옛 처지를 잊지 말아주게. 더우기 아직도 분계선 저쪽에서 원쑤놈들이 우리들을 또 다시 예전과 같은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하는 조건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두 자기의 맡은 과업에 충실해야 할것이 아닌가！ 나는 용감한 자네 아버지의 친구로서 자네의 앞길에 반드시 커다란 개변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충고하는 바이네.

이윽고 머리를 든 그 젊은 로동자의 두 눈엔 가책의 맑은 이슬이 반짝였다.

—브리가다장 아바이！ 내가 잘 못했수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우리 로동 계급의 옛 처지를 잊었드랬수다. 이제 다시만 그러면 정말 사람 자식이 아니우다.

—고맙네！ 젊은이！

로탄부의 손은 어느듯 젊은 로동자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5월의 훈풍이 그들의 얼굴을 시원히 스친다.

본사 기자 한 희만



박 선 생

리 기영 작 단편 (박 선생) 중에서

거룩한 안식일(安息日)이 되였다.

아침 종소리가 땡강!땡강! 울려 나오자 성경과 찬송가를 옆에 낀 선남 선녀들이 례배당 안으로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죄악이 팡영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천주 백성들이다. 그들은 한 이례 동안을 두고 풍성하게 받은 하느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주일임에도 이 거룩한 성전(聖殿)으로 산제사를 드려려 온 것이였다. ……………

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 뒤에 오늘도 엎드려 전도사의 기도로 신성한 례배는 시작되였다. 녀교사가 풍금을 치고 목사의 큰 딸 혜숙이가 —마치 반한 사내 앞에 나설 때와 같이 치장을 차리고 나와서 독창을 하였다—(박 선생을 할기죽 할기죽 결눈질하면서…)

박 선생이 성경 랑독을 하고 나자 후록코트를 입은 목사는 정중한 태도로 강단 앞에 나서서 설교(說教)를 시작하였다. ……………

《여러분이시여!》

하고 목사는 장중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

《…—저—들에는 오곡 백곡을 삼십배도 결실하고 칠십배도 결실하는 기름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무수한 생선이 들이 고이고 이 땅 속에는 금, 은, 동, 철의 보화가 들이 쟁여서 우리가 일용(日用)하고도 오히려 남저지가 있도록 온갖 물건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난합니까? 남과 같이 이목구비를 타고 나서 왜 남과 같이 못 사느냐 말입니까? 아니 가난이 뉘 탓입니까? 옳아요! 이 세상에는 과연 가난한 사람이 많기는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원 수구할 것이 아니라 모두 게으른 죄의다.》

하고 그는 주먹으로 탁상을 탕 치며 가난한 것은 게으른 죄라고 례배당이 떠나 가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그래 막동 어머니는 별안간 성이 나서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했다.

《아니 부지런하기만 하면 다 잘 사는가? 부지런 할래도 부지런할 일이 없는 것은 어짜구?…저게 그래도 목사라고? 하느님도 팔자 사납지 에잇! 또 뜨물을 쳤군그래, 뜨물을 쳤어!》

……………

이 례배당에는 녀자의 신자가 더 많고 이 교회의 부속 학교도 역시 녀학교였다. 그런데 이 녀학교의 교사(教師)가 아까 잠'간 소개한 그 박 선생이다.

……………

목사는 지금 오십이 불원하였으나 목사 부인은 금년에 서른 댓 밖에 안 먹은 데다가 더구나 나이보다는 훨씬 앳 되여 보이는 아직도 청춘의





붙'길이 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는 김 목사에게로 재취 시집을 오자 마자 바로 태기가 있어서 남들이 모두 전날 밤에 밴 애라고 수군거리던 혜은이를 초산으로 낳았다.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다. 오늘 아침에 혜숙이 형제만 있을 때—그때 혜숙이는 모친과 싸우고 골이 잔뜩 났을 참이다. 혜은이 보고 아래'목에서 삭삭 자는 로득이를 손'가락 질 하며 하는 말이

《너 저애가 누구 닮았는지 아니?》

하였다. 그때 혜은이는 별안간 생각지 않은 묻는 말에 아주 덩둘한 모양으로 정말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듯이 말끄미 자는 애를 쳐다 보다가

《글쎄 누굴 닮았다니, 아버지 닮았나?》

하고 뒵다 혜숙이 보고 물었다.

《박 선생 닮지 않았니! 아버지코가 어디 저렇게 생겼나.》

《어째서 박 선생을 닮았다니?》

《내가 아니. 있다 어머니 한테 물어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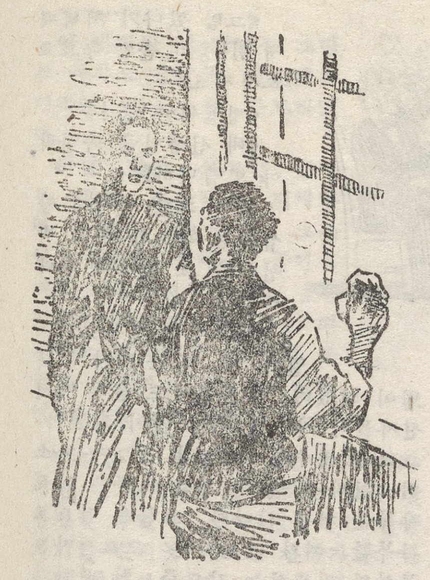
혜숙이는 샐쭉 해지며 볼 먹은 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홱!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

이날 례배를 파한 뒤에— 하기는 목사 부인은 이담 날로 미루고저 하였으나 목사가 한사하고 우겨서—몇몇 직원들만 집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것은 그전에도 가끔 이런 모임을 베풀어서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모임도 역시 그러한 종류로서 이를테면 간친회(懇親會)비슷한 오찬회 같은 것이였다.

박 선생은 벙글 벙글 웃으며 들어오더니만 우선 로득이를 뺏아가지고 목사님은 참 아들을 잘 누셨다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형용사로 칭찬해 주었다. (그는 하필 혜숙이 형제가 앉은 옆에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러 사람들도 박 선생의 말을 따라서 한마디씩 로득이에 대한 칭찬을





하였다. 그래 목사의 입은 기쁨으로 떡 벌어졌다. ……

《부흥회한지도 퍽 오래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모두 원하신다면 속히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

《부흥회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법인가요?》

이 때까지 아무 말이 없이 여러 사람의 말만 듣고 벙그레 웃고만 앉았던 박 선생이 이렇게 물어 보았다.

《그렇지요. 죄를 자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흥회는 해서 무엇 하나요.》

이것은 확신성 있는 목사의 대답이였다.

《그러나 자기 죄를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복할 수 있을가요?》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할 노릇이지요? 부흥회에 성신이 내려서 사람의 마음을 성화(聖火)로 뜨겁게 해야 되는게지요.》

《부흥회를 치러봐야 믿음이 잘 자라난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마쓰 목사를 청해 오시지요.》

하고 전도 부인도 목사를 힐끗 쳐다 보며 충동이였다.

……………

이 례배당에서 종수(鐘手)와 하인 겸으로 있는 양섭이는 지금 례배당 안을 대청결하느라고 한참 바쁠 판이다. 그는 벌써 사흘째나 례배당 안팎을 깨끗이 쓸고 마루에 걸레질까지 쳤다. 지금 그는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학교 시간을 마친 박 선생은 무슨 일 감독이나 하는 것처럼 그의 일하는 옆에 와서 우두커니 보고 섰다.

《너도 부흥회를 치러 보았니?》

《그럼 못봐요. 박 선생님 오시던 바로 그 전해에 물건너 례배당에서 하였는데요.》

《응— 부흥회에서는 모두 제각기





지은 죄를 자복한다며 ?》

《누가 그래요. 죄를 자복한다고?》 양섭이는 또 코웃음을 친다.

《모두들 그러더라.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자복해도 괜치 않을 죄는 자복하겠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답니다 —죄를 자복한다기에 참으로 죄를 자복하는 줄 알았더니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도……》

《아니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자복은 않는단 말이지 ?》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고 참말이라면 참말이지요.》

하는 양섭이는 다시 한번 허허 웃는다. …………

《아야, 그것은 될뻔이나한 말이냐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그럼 아무 보고도 그 말을 하지말아야 해요》

《암 그야 이를 뿐이냐》

박 선생은 아주 믿거라고 다짐까지 두며 말했다.

《그럼 있다가 저녁때에 뒤'동산 솔밭 속으로 오시지요》

《정말이냐 응 !》

《네 선생님을 속일리야 있습니까》

과연 그날 저녁때 양섭이는 약조한 대로 박 선생을 그 곳에서 만나 주었다. …………

부흥회는 어느덧 2주일이 다 가는 마지막 날 밤이 되였다. 그 동안에도 물론 여러 신자들이 자복한 죄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를 그중 잘 믿는다는 소위 천직(天職)을 가진 이들은 아직 자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참으로 자복할 죄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목사와 전도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죄가 많으니 회개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그 죄가 무슨 죄라고는 분명히 내놓지 않았다.

이 부흥회에는 박 선생도 물론 밤마다 참례하였다. 그는 차차 믿음이 뜨거워지는 모양 같았다. 전에 없이 열렬한 목소리로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

이 마지막 날 밤에는 도마쓰 목사도 정력을 있는대로 다하여 기운차게 전도하였다.

이날 밤에 설교의 문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 라는 것이였다. 그는 여러가지로 실례를 들어서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고말 것이며, 회개하고 자복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고 구변을 다하여 장광설을 휘둘렀다. ……



별안간 박 선생이 벌떡 일어 나더니만 두 활개를 쩍 벌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싱긋 벙긋하는 입을 메기입 벌리듯 하고는 찬송가를 한바탕 례배당이 떠나가도록 부른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서 모두 일시에 그를 쳐다 보았다.

그러나 박 선생은 더욱 신이 나서 펄펄 뛰며 여러 사람의 부복한 사이로 한 바퀴 휘돌더니만 다시 강단 우로 뛰여 올라 갔다.



……………

《하느님은 이 자리에 성신을 나리셨다. 너희는 참말 죄가 없느냐 ? 오…》…………

《엘리사 베쓰야 ! 너는 참으로 죄가 없느냐 ?》

《아 ! 하느님 아버지 ! 그저 용서하여 주읍소서. 미련한 인간이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저 잘 못하였습니다…》

이름을 불리우자 그는 무엇에게 멀미잡이를 당하여 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달려 오며 이렇게 말한다.

《김 신호야—너는 명색이 전도사로서 내외 주점으로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오—하느님이 무섭지 않으냐 ?》

엎드려 전도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두손을 맞잡고 서서

《아, 주여 ! 용서하여 주읍소서… 과연 저는 마귀의 꾀임으로 술을 먹



었나니다!» 그리고 하더니만 그는 별안간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쾅— 치며 그 자리에 푹 엎드려서 갈빔 울음을 내놓는다. …………

박 선생은 청중에게 다시 통상 기도하기를 명령하였다. 그래 그들은 또 모두 쭗어 엎드려서 아까보다도 더욱 열렬하게 기돌 올리게 되였다.

이렇게 부흥회는 신령하게 되여서 밤이 깊어 갈수록 죄를 자복하는 통곡 소리가 더 커가는데 그런데 박 선생은 어느 틈에 없어졌는지 그들이 기도를 다 올리고 일어나서 보니 어디로 온데 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 청중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혹시는 승천하지 않았나? 하고 수군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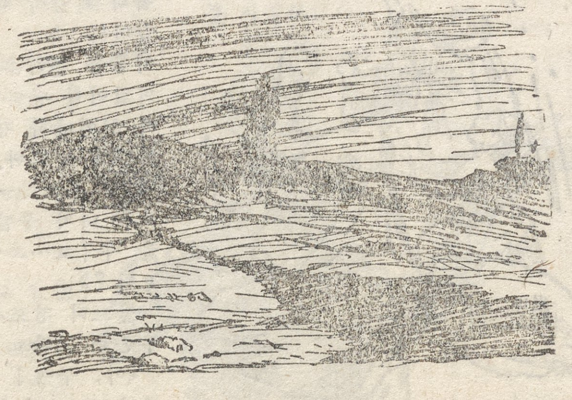
김 목사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강단으로 뛰여 올라가 보았다. 도마쓰 목사는 그 뒤를 따라 올라 갔다. 다른 이들도 우—몰려 갔다… 그러나 박 선생은 흔적도 없고 탁상 우에는 난데없는 웬 종이 쪼각이 한 장 놓이였다. 김 목사는 그것을 펴 보았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인간의 바른길을 찾고져 함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야 말로 미신과 위선과 죄악의 굴혈이란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는 당신들과 같이 있을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아니 정의와 진리를 찾기 위하여 당신들의 교회를 지금 영원히 떠나갑니다—박 선생…………

박 선생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근처 사립 학원 선생이 되였다. 그 후부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종교 선전을 철저히 하였다.

그림. 오 영 복



종교의 발생 원인

빼. 에프. 끌로너쯔끼

종교란 초자연적인 것을, 신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다. 종교도 세상의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생겨났으며 그 근원이 이 세상에 있다.

종교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항상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무엇인 것처럼 주장하여 왔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하는데, 그것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여라, 이런 일은 하지말아라는 명령을 내놓고는, 그 명령을 규칙으로 삼아서 그대로 행동하라고 사람에게 훈계나 한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 보면 이 규칙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이 아니라 착취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착취자들이 근로자들에 내내 멍에를 씌워서 아무런 권리도 없게 하여 두고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자기 재산을 모아서 더럽기는 하나 달큼한 생활을 하여 나가는 데만 유리하다. 만약 근로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살면서 또 그것을 엄격히 준수해 나간다면 항상 공손한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착취자들은 그들을 지배하며 또 모든 생활상 복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종교에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는 모든 훈계의 근본은 한가지 사상이다. 천당에 가서 행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참고 고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계급 사회가 생겨난 이래 내내 노예 소유자와 지주 그리고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복종시켜 놓고 그 피땀을 빨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종교는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라는 헛소리가 폭로된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생각해 내여 그것을 사람들 머리속에 집어 넣어 주었고 그래서 종교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교회의 신부들은 종교를 한걸음 한걸음씩 지배 계급의 리익에 맞도록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지배 계급에 종속되였으며 온갖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 견해라는 한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종교 자체로 말하면 그것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겨난 것이다.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종교가 어째서 있는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있는가? 무엇이 신자들로 하여금 자연 세계 외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 세계가 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세상에서는 종종 말하기를, 종교의 근원은 사람들이 무식한 데 있다느니,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데 있다느니 한다. 이 말에도 옳은 점이 많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과학 지식이 없고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선 신을 믿고 있다. 그러나 만사를 그렇게만 말하여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글도 잘 읽고 심지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수가 흔히 있다. 반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글도 잘 못 읽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적잖게 있다. 그러므로 무식이라는 것만으로 신을 믿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종교의 근원이 고의로 꾸며낸 헛소리와 기만에 있다고들 흔히 말하고 있다. 18세기의 불란서 계몽가인 볼테르는 종교의 시작이 어리석은 자가 사기사를 만난데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는 옳은 점이 약간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아직 사물을 자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릴 때에 소위 종교의 《진리》라는 것을 집어 넣어 주면 그런 교양을 받은 사람이 주로 신을 믿는다.

그러나 만사를 여기에만 돌리는 것도 옳지 못할 것이다. 종교를 위시하여 머리에서 짜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공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신을 믿게 하는 더 깊은 원인이 없는 데도 어떤 력사적 조건하에서 그것을 거의 인류 전체에 강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식과 기만 이 두가지는 종교적 견해가 발생하여 공고히 되는데 중요한 필수 조건이기는 하나 모두 그 주되는 근원은 아니다. 종교의 주되는 근원 다시 말하면 그 제일 깊은 뿌리는 사람의 의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조건이 그 머리에 반영된 것일 따름이며, 이 조건이 의식을 낳고 의식을 규정한다.

사람이 돌로 만든 도끼나 곡괭이 같은 대단히 유치한 연장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그것으로 생산 했댔자 많이는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자연 앞에서 무력하였던 먼 옛날, 즉 원시 사회에서 종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창이나 활로써 죽일 수 있는 짐승을 찾아내는가, 원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극히 간단하고 조잡한 연장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나타나는가, 쉽사리 딸 수 있는 열매가 나무나 덤불에 있는가 등등에 따라서 원시적 인간의 모든 생활과 행복이 좌우되였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생산성이 높은 로동 도구로 자연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좋잖은 우연성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데 원시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공포에 항상 눌려 있는 셈이였다. 기한, 맹수, 질병, 변사, 이런 것이 원시적 사람들의 앞에는 한 걸음마다 잠복하여 있었다. 이런 재앙을 막고 그것을 극복할 보신 수단은 대단히 미미하였다.

자연에 대하여 무력하며 그것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느낌, 생활을 위하여 싸워 나가면서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무서운 자연력에 대한 공포—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이 원시 인간의 약한 의식을 억눌러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력도 그와 마찬가지로 의식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대로 행복과 불행을, 선과 악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생기게 하였다. 그러므로 원시적 사람들은 현대의 의미에서의 신 즉 어떤 보편적 정신의 형태를 가진 신이나 인간을 형상한 신이 아니라, 례를 들어 태양, 번개, 우뢰, 바람 등등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나 나무, 이러 저러한 짐승 등등 가장 평범한 현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원시적 사람들이 더구나 극히 무식하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란 빈약하였고, 때문에 그들한테서는 주위 세계와 그 현상에 대하여 극히 유치한 설명밖에는 생길 수 없었으며 또 그런것 밖에는 생기지도 않았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원시적 사람이 무력한 데서 생긴 열매인 원시적 종교도 이러한 설명의 하나이다.

그런데 문화가 높은 덕으로 자연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게 된 현대 착취자 사회에서 종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현대의 계급 사회, 즉 착취자 사회의 사람들에서도 원시적 사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독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편견이 계속 살아도 있고 심지어는 성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원시적 사람은 자연의 힘에 억눌리워 있었고 착취자의 계급 사회 사람은 사회 생활의 힘에 억눌리워 있다는 차이뿐이다.

착취자의 계급 사회의 절대 다수인 근로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착취자들의 억압 밑에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견디어 낼 수 없는, 기쁨없는 근로자의 생활—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항상 알지도 못하는 하늘을 쳐다 보게 하고 거기에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한다. 그래서 례를 들어 기독교는 옛 로마 제국의 노예와 빈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견딜수 없는 운명을 헐하게 만들어 보려다가 대패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였다. 노예들은 그 정복자들로부터 해방되어 보려고 루차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매번 가혹한 탄압을 당하였다. 그리고 생활은 그냥 견딜 수 없이 곤난하였다. 그것을 완화시킬 희망이라고는 그전에도 없었고 당시에도 전혀 있을 수 없었다. 출로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무엇에 희망을 걸었겠는가? 자신의 힘은 이미 여러번 시험하여 보았으나 노예로 부터의 해방은 달성되지 못한 것만큼 범상치 않은 그 무엇에 희망을 걸 수 밖에는 없었다. 예수 크리스트가 강림하였다는,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는, 무덤 저편에 더 훌륭한 생활이 있다는 전설이 이 범상치 않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기독교는 현대 종교의 모든 다른 형태와 마찬가지로 현실 생활의 더 좋은 장래를 갈망하다가 그 기대에 절망과 환멸을 느낀 결과로, 피 착취자가 착취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력하였던 결과로 생기게 되였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미개인의 무력이 신, 악귀, 기적 등등에 대한 믿음을 산생케 한 것처럼 착취자와의 싸움에서 피 착취 계급의 무력이 더 좋은 래세 생활에 대한 믿음을 산생케 하였다》라고 웨.이. 레닌은 말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적대 계급에로의 사회의 분화, 사회의 절대 다수의 무권리한 처지——이러한 것이 사회 법칙의 작용에 맹목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는바,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더 우심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 공황, 실업, 령락. 기아와 빈궁에 대한 부단한 공포——이러한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낮뒤에 밤이 오듯이, 지진이나 일식 등등이 있듯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래일을 위한》공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프로레타리아로 부터 가장 큰 자본가에 이르기까지 가득차 있다. 프로레타리아는 실업과 빈궁 그리고 기아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으며, 대 자본가들은 이러저러한 사업에 그가 투하한 자본이 최대한 리윤을 남지 못할가바, 또 그가 알지 못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맹목적인 힘의 장난으로 그가 오늘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지위를 앞으로 잃어 버릴가바 항상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독특한 힘, 숙명이라느니 하는것, 알 수 없는 운명, 리해할 수 없는 신의 섭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관념이 생기며 또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 부르죠아지가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온갖 신비한 것과 온갖 미신을 떠받치고 숭상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한다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도 그 본질상 우리의 먼 선조인 원시적 사람들의 관념과 꼭 마찬가지로 세계의 발생에 대한 황당한 관념이 계속 살아서 발전하고 있는 리유가 특히 명백해진다.

이렇듯 종교는 어떤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 뿌리를 사람들의 일상 생활 조건에 박고 있는 것이다.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 기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신화와 전설에서는 현실 생활이 외곡되여 반영되여 있다. 현실 생활의 조건에 따라서 종교도 변한다. 인간이 자연에 억눌리우고 있었을 때에는 인간은 자연물을 신격화하여 그것을 숭배하였다. 자연의 지배가 뒤로 물러서고 사회 세력의 지배 즉 피 착취자에 대한 착취자의 지배가 이와 교대하여 나설때에는 신격화된 자연 대신으로 신격화된 인간 자체가 등장하였다. 종교에서 말하듯이 신이 자기의 본을 따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상상하여서 신을 만들고 자기의 현실 생활을 본따서 종교의 세계를 고안해 낸 것이다.

과학 지식

꿈에 대하여

평양 사범 대학 심리학 강좌장 리 본 녕

꿈에 물을 보면 그날 재수가 나쁘고 송장을 보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오늘날에도 간혹 있다. 임신부가 꿈에 해를 보면 남자를 낳고 달을 보면 녀자를 낳는다고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꿈이 우리들의 앞'일을 예언이라도 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신포 수산 사업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파를 만나 돛대가 꺾어진 꿈을 꾼 일이 있었다. 그래 그 사람은 이것은 꼭 불길한 무슨 사고가 생길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 이튿날 고기 잡이를 떠나는 것을 꺼려 하였다.

이곳 젊은 청년들은 그 사람을 설복하여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이날 배가 파선되기는 고사하고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무사히 돌아 왔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꿈을 믿는 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꿈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며 앞'일을 점치는 예언으로 믿게 되는가? 그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사물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통치 계급들이 이와 같은 미신을 조장시킨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꿈의 신비성을 믿는 관습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리씨 왕조(李氏王朝)의 첫 왕인 리 성계(李成桂)가 한양 (漢陽—지금의 서울) 에 도읍할 때 꾸며졌던 무학 대사 (無學大師) 의 해몽 (解夢) 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리 성계는 처음에 왕십리 (往十里) 에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무학 대사가 꿈을 꾼 바에 의하여 삼각산 (三角山) 밑, 지금의 경복궁 (景福宮) 자리에 도읍하게 되였으며 이 자리를 중심으로 서울이 생겨났다 한다. 그리하여 리조는 도읍을 잘 한 탓으로 자기들의 정권이 영생 불멸하리라고 장담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학 대사의 꿈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안다. 리조는 500년후에 망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리씨 왕조가 무학 대사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한간에 널리 퍼친 리유는 무엇인가?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리씨 왕조는 고려 (高麗) 왕조를 꺼꾸러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리 성계가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 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는 지방 세력들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리씨 왕조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여러곳에서 일어 났다. 이것이 리씨 왕조에게는 두려웠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정권의 영원한 존재를 인민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런 맹랑한 이야기를 한간에 퍼쳐 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꿈이 앞'일을 예언한다는 말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배 계급들이 인민들을 자기의 세력 밑에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되여 왔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 꿈에 대한 견해는 달라졌다. 로씨야의 위대한 생리 학자 이. 뻬. 빠브로브에 의하여 꿈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인 분석이 내려졌다. 빠브로브의 학설에 의하면 꿈은 사람의 령혼의 작용인 것이 아니라 뇌가 불균형적으로 잠드는 결과—즉 뇌의 일부가 아주 자고 다른 일부가 깨여 있는 탓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잔다는 것은 뇌의 활동이 멎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었다고 해서 뇌의 활동이 완전히 멎는 것은 아니다. 첫 잠에 들었을 때는 뇌의 활동이 적으나마 지속된다. 깊이 잠든 때에라야만 뇌의 활동은 완전히 멎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긴 하였으나 뇌의 일부가 아직 깨여 있는 그러한 때에, 그 뇌 속에 살아 있는 신경 흥분의 흔적이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신경 흥분의 흔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보고 냄새 맡으며 느끼는 모든 현상과 인상들이 뇌 속에 백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신경 흥분의 흔적은 참으로 오랜동안 뇌 속에 백여 있다. 우리가 10년만에 만난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엔 그가 생소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에서 익숙된 그런 감을 느끼는 것은 10년전의 기억이 뇌속에 백여 있기 때문인 것이다.

1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여 4년간 독일에 가 있다가 로씨야로 돌아 온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그후 조국에서 17년 동안이나 생활하는 과정에 독일어를 죄다 잊어 버렸다. 그러던 그가 1935년 뇌수 외상 (外傷) 으로 말미암아 실어증 (失語症) —말을 못하게된 병에 걸렸는데 그 회복기에 들어서서 돌연 독일말을 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뇌 신경에 자극했던 현상이나 인상들이 그 흔적을 얼마나 오래 동안 뇌 속에 간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꿈이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상과 비슷하다.

당신들이 바로 어제 밤까지 꾸었던 수많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으며 또 실지 체험해 본 일도 없고 상상도 한 일이 없는 그런 것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었는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갓 떨어진 아기는 꿈을 모른다. 왜 그런가? 갓난 애기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없으므로 뇌 속에 백인 신경 흥분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꿈이 령혼의 작용이라면 사람인 어린 아기에게도 이러 저러한 꿈이 생겨날 것이

아닌가!

실지 보지 못한 것을 꿈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장님(盲人)의 꿈에 대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다. 장님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 그중 하나는 낳을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생후에 어떤 불행한 일로 하여 장님이 된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의 꿈에는 시각적(視覺的) 현상이 전연 나타나지 않는다. 즉 꿈 속에서 그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 다만 소리가 들리고 그 어떤 냄새가 코를 찌르며 맛이 느껴질 따름이다. (한 가지 례를 들면 꿈 속에서 밥냄새를 맡을 수는 있는데 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은 세상에 태여나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꿈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꿈이란 언제나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결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꿈이 장래의 운명을 예언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동무들은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달 세계에의 려행을 꿈 꾸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들이 직접 달 세계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서적과 그림을 통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달 세계 려행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었으며, 어떤 때는 그 려행을 상상조차 해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오직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과학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최근까지도 우리 유기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수 있는 시간은 림상적 사망후 불과4—6분이 경과한 때에라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보쎄볼로드 얀곱쓰끼 교수가 지도하는 우크라이나 학자 그루빠는 이것이 마지막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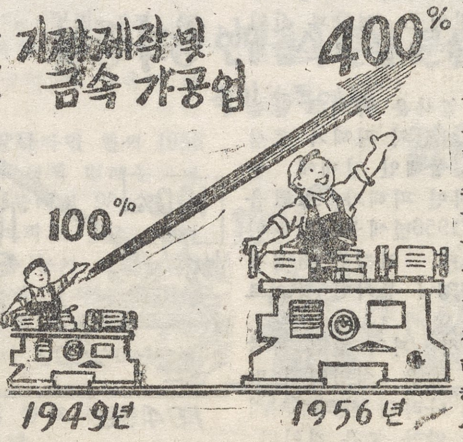
연구소 일'군들은 혈액 순환법을 적용함으로써 병들어 죽은지 15분이 경과한 동물을 다시 살쿠었다. 이에있어 동물의 뇌막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였다.

다시 연구소에서는 재생중의 유기체에 대하여 저온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죽은지 35—40분만에 개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었다. 특히 죽은지 한시간이 지난 고양이를 다시 살아 날 수 있게 하였으며 또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기 왕성하였다.

✻✻✻✻✻☆ 우리의 위대한 열매 ☆✻✻✻✻✻

우리는 정전 후 페허 우에 복구 건설의 첫 걸음을 내디디였다. 페허는 말할 수 없이 황량했다. 그때로부터 3년 여의 세월이 흘러 갔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들과 웅대하게 복구 건설된 공장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땀과 힘과 지혜와 정열의 위대성—우리는 참으로 로력의 힘이 그 얼마나 크며 훌륭한가를 전후 3년 동안 체험했다. 정전되던 그때 미제와 리 승만은 이것을 복구한다는 것은 《빨갱이》들의 망발이라고 했다.

우리의 일부 형제 국가의 벗들도 의혹을 품었었다.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이런 기적이란 있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시에는 《저것을어떻게…》 하는 의혹을 가슴 한 구석에서 느끼지 않았던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것이란 오직 인민들의 조국애였으며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정열뿐이였다.



공장, 기업소 그리고 도시와 마을이 모두 미제 야수들의 폭탄에 참혹하게 파괴되였었다. 입을 것, 먹을 것도 부족하였고 살 집도 변변치 못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실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마음만이 앞으로 앞으로 달음쳐 가던 그때로부터 3년 여의 나날이 지나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룩해 놓은 성과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목청껏 웨쳐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위대한 전후 3년간의 승리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자신의 가슴에 묻고는 저마다 떳떳이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경제 정책과 그에 충실한 인민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적극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또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원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로 이것이 없었던들 우리는 그렇듯 위대한 성과를 쟁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과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민 경제를 전쟁전 수준보다 훨씬 높이였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곳곳에서 아물게 했으며 그 심하던 파괴의 자취를 기본적으로 회복시켰다. 이미 수많은 대, 중 기업소들이 복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설 확장되였다. 전후 3개년 기간에 복구된 공장, 기업소 수는 240여 개소에 달하며 새로 신설된 공장, 기업소 수는 80여 개소에 달한다.

이리하여 공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2.9배로 늘었으며 전쟁전 수준을 1.8배로 앞서게 되였다.

특히 중공업 부문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전쟁전 수준을 4배나 통가하였고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신식 선반기를 1956년도에 507대나 생산하였다.

경공업 부문에서의 면직물 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7.8배로 통가하였다. 그리하여 평양 방직 공장에서만 하여도 하루에 20만메터의 직물을 생산하였는데 이 길이는 평양과 신의주간을 련결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농촌 경리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촌은 전쟁의 피해가 혹심한 데다가 전후 동해안 일대에 두차례의 혹심한 자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는 287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전쟁전 1949년 수준을 8%나 통가한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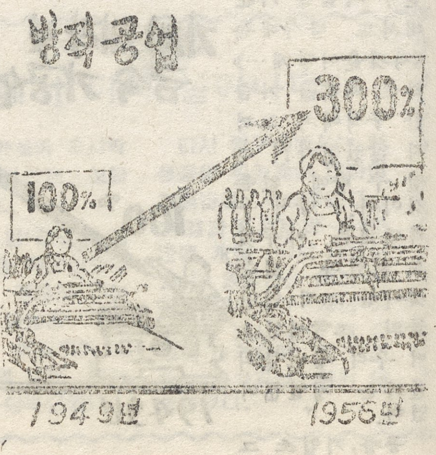
둘째로 산업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남겨 놓은 식민지적 락후성을 제거하고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닦아 놓은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결과로 심히 락후한 형편에 있었다.

일제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광석을 캐내는 광업이라든가 원료를 반제품으로 만드는 공업은 어느정도 발전되였지만 그러나 기계 제작 공업같은 것은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최대의 리익을 짜내기 위하여 락후한 기술 상태를 개선하지 않았고 공업 지대는 주로 자기들이 본국으로 실어 가기 편리한 해안 연선에 배치하였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부족점들을 없애는데 큰 주목을 돌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3개년 계획 기간에 전에 없던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대성 벽돌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도 새로 세워 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직류 발전기, 신형 선반, 목





고 변압기, 착암기 등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들과 각종 화학 제품들, 그리고 고급 면직물을 포함한 각종 인민 생활 필수품들도 다량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능히 자체의 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다.

세째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가 급속히 장성 발전하였다.

공업 부문에서 말한다면 벌써 1956년도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전체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98%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고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오늘 총 농가 호수의 80.9%와 전체 농경지 면적의 77.9%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농촌 경리 발전의 결정적 힘으로 되고 있다.

네째로 인민들의 생활 형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후 기간에 대중 소비품 생산의 장성,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의 저하에 기초하여 5차에 걸쳐 물가 인하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 물가 수준은 1953년에 비하여 45%나 낮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소득금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또한 3개년 계획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 지수는 가급금제 실시와 년말 상금의 실시, 특히는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평균 35%의 임금 인상에 의하여 현저히 높아졌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끊임없는 배려를 베풀어 주었다. 즉 영농상의 방조를 위하여 식량, 종자, 영농 자금의 대여 그리고 미납된 현물세, 대여곡 등 9만톤의 량곡과 14억원에 달하는 대부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현물세률의 감하, 고정 현물



세제의 실시, 관개 사용료의 경감,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비료 교역 비률의 개정 등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현저히 증가되였다.

도시 상공업자 및 수공업자들과 기타 개인 경리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활도 소득세률과 지방 자치세률의 인하 등 제 대책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개선 향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달성한 성과들이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밑에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달성한 성과를 크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만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지난 기간에 우리가 달성한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초보적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전진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한 고개를 넘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계획을 초과 완수할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더욱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어떤 애로와 곤난이 있더라도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증산과 절약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김 이 철

(책 소 개)

당 비

민주 청년사 발행
판형 국반절 111페지 값 15원

이 책은 중국 작가 왕 원견의 단편 《당비》와 리 백조의 단편 《녀 공산당원》을 수록한 중국 단편 소설집이다.

이 책을 통하여 청년들은 중국 공산 당원들의 당과 혁명을 위한 불요 불굴의 투지와 자기 희생적인 고상한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평양 방직 콤비나트 편직 공장에서—

예비는 무진장하다

순회 우승기를 박 성빈 브리가다에 넘겨 준 뒤로는 김 순진은 자리에 눕기만 하면 골몰히 생각에 잠기군 했다.

최 인결 브리가다가 이번 경쟁에서 진 것은 국가 지표나 브리가다 의무 지표를 수행 못한 까닭은 아니였다. 조선 로동당 12월 전원 회의가 있은 뒤로는 국가 지표나 의무 지표를 해내지 못하는 브리가다는 없었다. 요는 그 지표들을 원만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예비들을 탐구하여 그것으로써 양말 한켤레라도 더 짜내는 자가 승리하는 터였다.

박 성빈 브리가다가 이번에 이긴 것은 그들이 한달 동안에 보조 자재 중160 여 대의 강침을 딴 브리가다보다 절약한 데 있었다. 종전에는 양말 열켤레를 짜는데 평균 4.3대의 강침을 소모하던 것을 두대를 절약하여 세대 만으로 열켤레를 짰던 것이다. 이것은 기대의 소재를 남달리 철저히 함으로써 기대의 회전을 현저히 순조롭게 한 데서 얻은 열매였다.

—박 성빈 브리가다를 배워야 해, 그리고 그들을 따라 가자면 더 새로운 발기를 더 많이 해야 해.

《면사 절약!》 그는 바로 이를 위해서 벌써 며칠전부터 새로운 예비를 찾기에 골몰해 왔다.

그러면 그 어느날 밤 그는 옳지! 하고 자기의 무릎을 툭 쳤다.

지금까지 양말을 짜는데 감모량으로 나오는 파사는 의례히 내버리는 것으로 되였었다. 이것이 한사람에게서 하루 30그람 이상 나고 있는데 이것을 추려서 양말을 짠다면 하루 두사람이 한켤레의 양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탐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그는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최 인결 브리가다원들은 한결 같이 그의 발기를 지지했다. 실로 이것은 순진이가 생각했던 그런 성과로 나타났다.

잊지 못할 교훈

그런데 이날 전 공장이 더우기 경

란하게 된 것은 순진이가 제호 《발기 초소》 투쟁 위원회에 제출한 이 발기외에 열 여덟켤레에 달하는 뜻하지 않은 양말의 기적적 증산량이 최 인결 브리가다에 생긴 까닭이였다. 그것은 어제까지만해도 한시간에 근근 열 여섯켤레의 양말밖에 못짜온 염 송자가 오늘따라 한 시간에 열 여덟켤레의 양말을 짜냈고 게다가 십여그람의 면사를 남보다 더 절약한 것이였다. 양성공으로 들어와서 민청 분조장인 순진의 방조 밑에 5급 기대공으로 자라난 송자가 그렇게 급작스런 성과를 낸 것은 놀라운 일이며 또 기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순진은 어쩐지 생각할 수록 이 일이 뜨직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가 제 발기를 했다면 가만히 있을리 없는데, 그런데 왜 그가 양말이 더 나온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까닭 모를 의문에 싸이던 그는 다음 순간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만약 발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야)하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순진은 이것이 동무에 대한 경솔이나 속단이 아닐까 싶어 저윽히 망서리다가

(증산을 위하고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이 주저되랴!) 하는 생각이 나자 곧 송자에게로 다가갔다.

순진은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가 하고 서성거리다가 이윽고 살갑게 자기 생각한 바를 말하였다. 그랬더니 송자는

—분조장 동무! 사실 나는 이일이 근심도 되였어요. 나도 모르게 두켤레씩 더 나오니…….

하고 비로소 사실을 고백하였다.

순간 순진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하는 핀잔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 왔으나 일하고 있는 그를 괴롭힐 수 없어 꾹 참고

—그래서 나도 미타해서 왔어요. 얼른 그 제품들과 정품 (합격품)을 맞춰 봅시다.

하고 듣기 좋게 말을 맺었다.

그제서야 송자는 급급히 자기가 짠 양말과 정품을 대조해 보았다. 정품보다는 확연히 길이가 짧고 더군다나 폭은 퍽 좁았었다. 모두가 오작품이였던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기대를 살펴 보기 시작하였다. 아무데도 달라져 보이는데는 없었다. 약 30분 남아 조사한 끝에 그들은 비로소 첸(이것이 한번 돌아오면 양말 한켤레가 나오는데 쇠 이'발들이 련결되여 하나의 철띠를 이룬 것임)의 이'발 하나가 다른 기대보다 모자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첸의 길이가 이'발 하나만큼 짧다 보니 다른 기대보다 회전 시간은 짧기 마련이고 그만큼 양말은 빨리 짜지긴 하나 그 대신 그 규격은 작아질 밖에 없었다. 송자는 이런 경위를 전연 모르고 있었다.

순진이네는 퇴근후 곧 민청 분조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여러가지로 구명하였다. 그들은 그 원인들 중 특히 큰 것은 제품의 질이야 어떻게 되였던지 간에 덮어놓고 '수'자만 많이 내려는 그런 그릇된 경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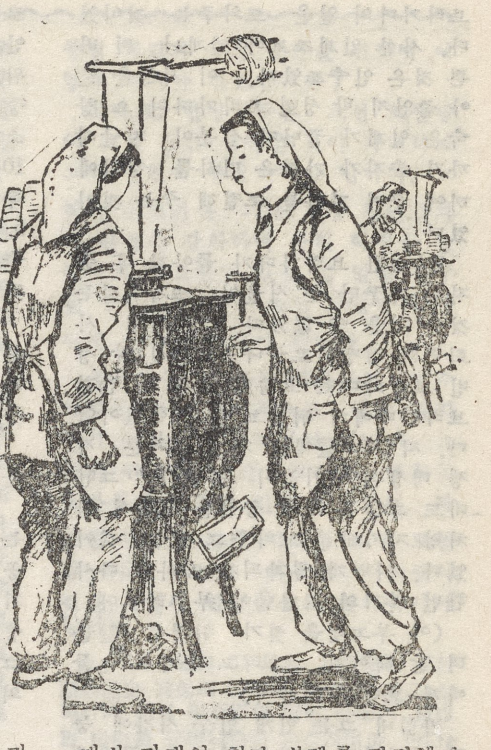
—나는 동무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증산과 절약을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에 대해서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덮어 놓고 많이 만드는 것으로 다른 브리가다를 이기려고 했어요.

—송자 동무! 우리의 경쟁이란 자본주의 사회서처럼 남을 깔아 뭉개려는 그런 경쟁이 아니예요.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증산하며, 또 더 많이 증산하기 위해서 남에게서 배우며, 자기의 좋은 점을 남에게 가르치며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주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자는데 경쟁의 목적이 있는거예요. 우리의 경쟁이 아름다운건 여기에 있는거예요. 그런데 송자 동무는…….

그때 민청 위원장인 박 성숙 동무가 타이르던 말이 마음에 집히였다. 그러자 그는 모닥불을 끼얹는것 같이 얼굴이 화끈해왔다. 그는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나는……나는 이 결함을 꼭 시정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원인이 내가 교대시 기대 인수 사업을 떨떨하게 한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론……

송자의 자기 비판은 량심적이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네 브리가다가 해온 기대 인수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즉 10분 전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 입고 나면 사실상 기계의 인수를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부터 30분전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순진이네들께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전 교대 동무들의 시간을 묻고 따지는데서 전날 자기들과의 차이점을 찾아 보려고 했고 그 차이점의 원인을 찾는



데서 기대의 회전 상태를 판정했다. 그후 최 인결 브리가다에서는 근 달포 동안 한번의 기대 고장도 또 한켤레의 오작품도 내지 않았다.

아름다운 마음들

그후 송자는 날마다 올라가는 자기의 생산 실적을 수첩에 적으며 그날 하루의 생활을 매일 매일 검토하는 습관을 부치였다. 그는 아름다운 하루 하루를 쌓아 올리며 순진의 뒤를 따라 사회주의 경쟁의 모범을 보이려고 다짐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였다. 작업 인계 시간이면 무척 바쁘전만 박 성빈 브리가다원들은 그날따라 인계 준비에 서두르는 한편 다음 계속할 최 인결

브리가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였다. 사실 인계조보다 언제나 더 바쁜 것은 인수조였다. 이 사정을 알아 줌인지 박 성빈 브리가다의 오 창숙은 인계가 끝난지 십분이 지날때까지 송자가 가져온 면사를 강철에 끼여 주며 가마를 조절해 주는 것이였다.

박 성빈 브리가다가 돌아간 후 송자는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사회주의 경쟁이로구나!) 사실 박 성빈 브리가다는 요즘에 와서 최 인걸 브리가다에게 뒤지고 있는 형편이였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쟁 대상은 자기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증산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네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였다. 이렇게 생각되자 송자는 다시 한번 자기의 지난날이 부끄러웠다.

(이 부끄럼을 씻기 위해서 일을 더 잘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보답을 해야지)

마침내 그는 인계 인수 시간에 능히 반켤레의 양말을 얻어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기에 이르렀다. 교대를 앞두고 거의 10분동안은 전 교대 동무들이 인계 준비를 위한 기대 소제를 하느라고 생산을 중지하기가 일수였다. 이들이 기대 소제를 하는 동안에 교대전 30분중, 10분을 떼여 이들이 짜던 양말을 계속하여 짜 준다면 브리가다적으로 5, 6켤레의 양말을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생각은 브리가다원들의 대찬성을 받았다.

—난 내가 증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무들도, 그리고 전 공장이 증산하는 때라야만 사회주의 건설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송자의 말은 브리가다원들의 심금을 흔들었다.

그달 경쟁에서 최 인걸 브리가다는 의무 지표를 108%로 수행하는 공장 최고의 실적을 내고 순회 우승기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 속에 박 성빈 브리가다원들과 그리고 공장내 전체 동무들의 방조의 힘이 스며 있음을 잊지 않았다.

본사 기자 조 정곤

로력의 열매

티끌 모아 태산

우리 공장 공무 동력부 청년들은 파고철 수집 사업에서 모범이다.

그들은 매일 연민 보건 체조가 끝난 뒤에 약 20분씩 리용하여 공장 주위에 묻혀 있는 각종 파고철을 죄다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하여도 그들은 환철 250 키로그람, 주철 58키로그람에 달하는 파고철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벌써 수집한 파고철을 가지고 펜쇼부레기 스타트 40개, 스톱횡가스타트 50개, 콕관 160개, 기타 운반차 바퀴 28개 등 각종 기계 부속품을 제작하여 생산에 효과 있게 리용하고 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십만의 리익을 국가에 제공한 것으로 된다.

개성 직물공장 통신원 김 순녀

민청원의 의무는 어떤 것입니까 (1)

민청 규약 제2장에는 민청원의 의무가 규정되여 있습니다.

ㄱ. 《민청원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 민족도 하나 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아직도 통일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의 앞잡이인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매국 정책의 결과입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서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우리 조국의 발전에 지장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생활에도 큰 불행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오늘 조선 인민들의 가장 큰 민족적 과업입니다.

그러면 민청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재로, 민청원들은 조선 로동당의 조국 전선 정책을 깊이 리해하고 그의 실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있는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야 합니다.

둘재로는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철웅성 같이 지키며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ㄴ. 《민청원은 매 시기 제기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적극 실천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우리 민족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정당이며,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 기관입니다. 그러니만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들을 적극 실천하는 것은 민청원의 응당한 의무로 됩니다.

민청원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들, 특히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과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정치, 경제, 문화 건설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민청원들은 우리 나라의 기본 법인 헌법과 법령들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과 법령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들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령들은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로 됩니다. 민청원들은 헌법과 법령들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하여 용서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ㄷ. 《민청원은 자기의 정치, 과학,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정치적 각오와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간고한 혁명 임무는 매개 인민들의 튼튼한 정치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정치적 준비와 함께 자기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유산 그리고 선조들의 애국적 혁명 전통을 깊이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잘 연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청원들은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열렬한 국제주의 정신으로 자체를 교양하고 단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청원은 과학,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 의하여 건설됩니다.

그러니만큼 선진 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자와 기능자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각종 기술 학교와 기술 전습망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학습과 실습의 성과를 높이며 특히는 기술자들과 로련한 핵심 로동자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농촌에 있어서는 각종 영농 기술 학습망에 적극 참가하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2만 명의 농업 및 축산 기사 기수를 육성할 데 대한 민청 제4차 대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군중적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청원은 자기의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합니다.

민청원은 사회주의의 적극적 건설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항상 건강에 류의하며 특히는 체육 문화 활동과 인민 체력 검정에 열성적으로 참가

하는 등 방법으로 체력 단련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ㄹ. 《민청원은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전체 인민들과 함께 광범한 청년들의 적극적 참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민청원의 중요한 의무로 됩니다.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각계 각층 청년들을 민청에 광범히 받아들이여 그들을 참을성 있게 교양하여야 하며 둘째로, 민청원들은 일상적으로 각계 각층 청년들과 접근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친근한 벗으로, 교양자로 되여야 합니다.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청원들은 그들과 더욱 접근하여 그들의 생활에 관심하며 그들이 곤난해 하는 문제들은 제때에 민청에 반영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잘 납득되도록 타일러서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청년 대중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그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꾸준하게 해석 선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그의 실천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ㅁ. 《민청원은 민청원의 영예를 항상 견지하고 민청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민청의 결정과 위임을 신속 정확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민청원이라는 칭호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륭성 발전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청년들의 민주주의적 대중 단체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고상한 칭호인 것입니다.

민청의 기'발에는 국기 훈장 제1급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이 우리 민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임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청 규약은 민청원들에게 민청원의 영예를 견지하고 언제 어데서나 민청원답게 생활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청원은 언제나 행동으로써 민청 규약에 규정된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리행하며 민청 조직 생활에 충실하며 민청의 모든 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민청원들은 민청 총회에 잘 참가하여 민청 사업에 도움이 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청원들은 민청에서 결정되고 위임된 사업은 어떤 곤난이 있더라도 제때에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민청 교양망 개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청 교양망을 개편할 데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 조직 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각급 민청 단체들 앞에는 (초, 고중, 전문 학교, 대학 기타 상설적인 학교 학생 민청 단체는 제외) 1957—1958 학습년도를 준비하면서 7월 말일까지 민청 교양망 개편 사업을 끝마쳐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러면 민청 교양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민청 교양망은 청년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정치적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민청 초급 학습반과 민청 상급 학습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민청 초급 학습반에는 인민 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청년들과 초급 중학교 중퇴 정도 그리고 비교적 정치 수준이 높은 국해 정도의 청년들을 망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민청 상급 학습반에는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청년들을 망라시키되 고중, 전문 학교 졸업 정도의 청년들로써 비교적 정치 수준이 낮은 층도 망라시켜 맑스—레닌주의 기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 문맹화된 청년들과 국해 정도의 청년들은 성인 교육 체계에 망라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년간에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여 그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정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며 특히 30세 미만, 16세 이상의 청년들로써 조직되는 성인 교육망은 민청 단체들이 책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민청 교양망 조직은 원칙적으로 초급 (민청 단체 분조) 단위 혹은 청년들의 집체적 활동 단위로 조직하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촌 민청 단체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과 개인농 민청 단체로 구분하여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원상 관계와 청강 대상자들의 수준상 관계 그리고 학습반 강사의 보장 등 관계로 조직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병합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농촌 민청 단체들에서 민청 상급 학습반 대상자가 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거나 또는 학습반 강사를 보장할수 없어서 학습망을 조직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을 로동당 초급당 단체 상급 학습반에 망라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청 초급 학습반 강사 보조강사 혹은 성인 학교 강사나 영농 크루쇼크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농촌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영농 크루쇼크, 농촌 청년 학교에 망라된 청년들은 크루쇼크 단위로 학습망을 조직하고 그들의 수준에 적응한 학습 교재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초급 민청에서 인원이 적어서 학습망을 조직하기 곤난한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와 생산 협동 조합 민청 단체를 비롯한 교대별 작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교대별로 학습망을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 교양 체계에 망라된 민청원들은 기술 학습망 단위로 학습망을 조직할 수도 있다.

상업 류통 부문, 농기계 임경소, 전기, 체신, 림산 부문, 지질 탐사대, 수산 부문등 이동 작업이 심한 관계로 집체적 학습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불가능한 민청 단체들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리용할 것이며 따라서 집체적인 모임과 계절적 조건을 리용하여 강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학습 진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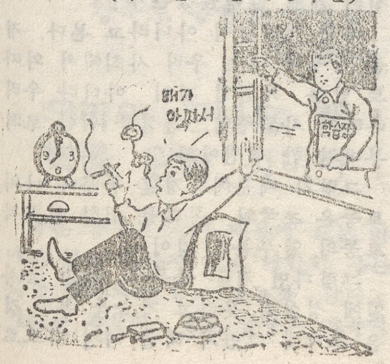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생산 직장, 농촌, 가두 민청 단체들에서 성인 교육망에 망라될 대상자는 있으나 인원상 관계로 성인 학교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는 초, 고중 졸업생 들로써 개별적 지도를 주어 성인 학교의 전과정안을 배워주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앞으로 모성(유아를 가진 가정부인) 및 통신 교육망, 야간 중학교에 망라된 민청원들은 민청 교양 망에 의무적으로 참가시키지 않아도 좋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민청 교양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되 사전에 교양망 개편에 대한 기본 원칙과 내용들을 민청원들에게 옳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 자신이 어떤 학습망에 참가할것인가 하는 사상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매개 초급 민청 단체들은 학습반 별로 되는 대상자들을 깊이 료해 장악한후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교양망의 합리적 조직과 함께 학습반별로 정치 리론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이 높고 사상적으로 견실한 청년들로써 학습반 강사를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장 및 기타 사정으로 학습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곤난한 민청 교양망들에서는 보조 강사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초급 민청 단체들은 7월 말일까지 교양망 개편 사업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는 개편된 학습반들에서 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 상 토 론

참된 생활의 길을 따라서





집단 속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배우자

나는 경훈 동무의 과오를 말할 때 그와 류사한 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한때 경훈 동무처럼 농사일을 천하게 생각했으며 농사일에 성실치 못하였다.

나의 이와같은 옳지 않은 태도는 조합 민청원들의 격분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조합 민청원들과 민청 단체는 나의 그릇된 사상과 행동을 비판하면서 나에게 수시로 충고를 주었다.

허지만 집단의 비판과 충고를 접수하지 않은 나는 끝내 조합을 떠나 이리저리 할 일 없이 헤매고 다니였다.

이런 생활 과정을 통하여 나는 집단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며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옳지 않은 과거를 뉘우쳤으며 지금 조합에서 다른 민청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는 내가 농촌에서 건달을 부리고 있을때 집단의 비판과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다. —나 개인의 일에 대해서 메주알 고주알 캘 필요가 뭣인가? 일을 안해서 굶게 되면 내가 굶지 너이들이 굶길레 걱정인가?

바로 이처럼 나는 동무들의 충고나 비판을 나에 대한 그들의 부질없는 간섭으로 생각하였으며 시끄러운 잔소리로 들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비판과 충고를 접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경훈 동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훈 동무가 자신의 처지와 집단에 대해서 옳게 리해 못했으며 따라서 고향을 떠나 영옥 동무와의 불건전한 사랑에까지 빠지게 되였다고 본다.

경훈 동무가 농촌에서 건달을 부리고 있을때 조합 민청 단체와 순애 동무는 동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때 경훈 동무는 동무들이나 순애 동무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했었다.

너무 한다는것—이것은 결국 개인 일에 민청 단체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불평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훈 동무가 조합일에 성실치 못하고 또 내가 한때 건달을 부린 것이 어떻게 경훈 동무나 나 자신의 개인 일이였겠는가?

나는 개인일이 아니라고 본다. 경훈 동무나 나는 우리 사회에서 외따로 있는 개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부대의 한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훈 동무나 나의 로동은 조국의 복리를 위한 전반적 로동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경훈 동무나 내가 농사일에 성실치 못하고 건달을 부린 것은 조국에 그만치 해를 끼친 것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민청 단체들은 경훈 동무나 나에게 비판과 충고를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집단이 조국의 리익을 위하여 한 일이며 응당한 것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경훈 동무에게 집단속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 호소한다.

집단속에서 살며 일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비판을 옳게 접수할 줄 안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과오를 서슴치 않고 비판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원칙적인 사람으로 되며 개인적 리익이 자기에게 어떻게 중요하던지 간에 자기의 리익보다 조국의 리익을 앞세울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렇게 살면 경훈 동무는 자기가 범한 과오를 다시는 반복치 않게 될 것이다.

평북도 동창군 학성리

김 춘 도

지 상 토 론

우리의 곤난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경훈 동무는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와 함께 일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는것 같다. 이것은 확실히 경훈 동무가 행복에 대하여 잘못 리해한 것이다.

참된 행복이란 경훈 동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난관을 뚫고 나가는 투쟁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한 투쟁은 곧 난관과의 투쟁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투쟁인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의 농촌 로동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되며 여름 삼복 지경에도 김을 매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곤난의 고개 넘어에는 보다 빛나는 조국의 미래와 더 큰 자기들의 행복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곤난을 용감히 뚫고 나가는 것이다.

정전 후 우리 마을 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곤난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전선에 나갔기 때문에 로력이 모자랐으며 축력과 농기구들이 전쟁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 게다가 식량과 입을 것이 모자랐으며 사는 집도 좋지 못했다. 이 외에도 원수들의 폭격에 의하여 관개 시설이 파괴된 후는 논까지 자연의 피해를 받게 되였으니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이때 우리가 만약 이 곤난 앞에서 물러 섰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쌀을 조국에 보다 많이 바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오늘과 같은 행복을 영원히 누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고생스러웠지만 굴함없이 일하였다. 로력과 축력이 모자라는 조건하에서 어

면 때는 축력이 하던 일을, 또 두세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였으며 그렇게 하고도 밤에는 관개 공사에 나가군 했다.

이렇게 곤난을 이겨 온 오늘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쌀이 모자라던 집들에 이제는 1년 반을 먹고도 남을 쌀과 수만원의 현금이 차례졌다. 토굴에서 살던 우리들은 모두가 알뜰한 새 집에서 살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하여 지금 5년 앞의 일을 내다 보고 금년도 알곡 증산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산에 과수원을 꾸리며 휴경지에 꿀통을 설치하며 양잠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경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곤난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앞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어려운 일의 뒤에 숨은 큰 행복을 내다 보기 때문이다.

경훈 동무! 나는 우리 조합이 지내온 일들을 공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곤난은 바로 행복을 위한 곤난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동무는 농촌 로동이 힘들다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달 사상이 싹트게 되였으며 결국은 사랑하는 순애 동무와도 결별하게까지 되였던 것입니다.

나는 경훈 동무가 곤난을 참아 내지 못함으로써 부모와 함께 참다운 애인인 순애 동무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떳떳하게 누릴 그러한 소중한 행복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과 부모와 애인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소중한 행복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듯이 경훈 동무도 이 모든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위하여 반드시 고향 농업 협동 조합으로 돌아 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온갖 곤난과의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황해남도 재령군
동하 농업 협동 조합
오 충규

탐오는 죄악이다

경훈 동무! 만일 동무네 집에 도적이 들어 물건을 가져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무는 성이 머리 끝까지 올라 그 도적을 붙들기만 하면 당장 법적으로 처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도적질한 사람은 법적으로 추궁 받는 것이 옳고 또 우리 나라 법령도 처벌하게끔 되여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는 인민의 재산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무는 동무 자신이 국가 물자를 횡취한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탱혹하지 못합니다. 그래 국가의 물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전체 인민들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국가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전체 인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민의 재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도 동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민의 재산 그 어느 하나에도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제때는 그만 두고라도 지난 전쟁 시기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침략으로부터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인민들과 청년들이 피흘려 싸웠습니까? 오늘의 이 거대한 재산들은 로동자들이 랑비할세라 애끼고 애껴서 절약한 한개의 못, 한오리의 실, 한 알의 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경훈 동무는 우리 공화국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로력으로 이루어진 이 고귀한 재산의 한부분을 횡취하였습니다.

경훈 동무! 동무의 그 탐오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 인민에 대한 범죄입니다. 왜냐 하면 동무의 그런 탐오 행위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사회주의 건설을 좀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훈 동무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려고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 상 토 론

앞으로 경훈 동무는 자기 로력의 대'가로 자기 살림을 꾸리는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탐오한 물자를 받고 아양을 부리는 영옥 동무의 뒤에는 수천 수만의 인민들의 증오에 찬 눈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영옥 동무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영옥 동무는 경훈 동무를 범죄의 구렁텅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옥 동무는 왜 경훈 동무의 탐오 행위에 대해서 눈감고 있습니까? 그래 경훈 동무가 동무를 위해 가져다 주는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인민의 재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동무도 우리 북반부에 사는 인민의 한사람이며 또 민청원입니다. 바로 경훈 동무가 동무에게 가져다 주는 그 물건들은 우리 전체 인민들의 물건인 동시에 동무 자신의 물건입니다. 그런즉 동무의 물건을 훔쳐다 주는 것이 뭐 그리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경이 제 닭 잡아먹고 게트림하는 격입니다. 영옥 동무는 경훈 동무의 탐오 행위를 낳게한 자기의 범죄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북 의주군 대산리
엄 옥자

제국주의와 중동의 석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중동에서 가진 추악한 놀음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중동에 기여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잠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중동에 대한 몽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양 각색의 귀맛있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중동의 석유를 최대한도로 략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세상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매우 풍부하다. 1956년 6월 윈나에서 열린 세계 동력 회의에서 영국 전문가가 발표한 계산에 의하면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약 300억톤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석유 독점 자본가는 이것을 다시 2,300억 드람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수'자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의 약 8배에 해당하며 자본주의 세계 총 매장량의 약 75%에 달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모두가 중동의 석유에서 일확 천금하려고 혈안이 되여 있다. 오늘날 중동의 석유는 놀랠만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1955년에 중동의 석유 총 생산량은 1억 6,400만톤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석유 총 생산량의 21.7%에 해당한다. 지난 10년동안에 전 세계의 석유 총 생산량이 불과 2배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는데 중동의 석유 총 생산량은 4.5배가 증가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중동의 석유에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중동 지역의 유층(油層)은 매우 풍부하며 또 출유률(出油率)도 높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낮아서 그 리윤은 놀랄만치 높다. 최근에 계산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매개 유정(油井)의 1일평균 생산량은 13 드람밖에 되지 않는다면 중동의 매개유정의 1일평균 생산량은 5,000드람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나 쿠웨이트에서는 한개 유정에서 1일평균 9,000드람까지 생산되고 있다. 중동 석유 한톤의 원가는 미국돈으로 75전 내지 2딸라 40전의 높은 값으로 판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은 매톤의 석유에서 수배의 리윤을 얻게 된다. 1955년 한해만도 외국 독점 자본가들은 18억 5,000만 딸라의 리윤을 얻었다. 그 중 미국의 독점체 아메이 석유 회사는 불과 5억 딸라 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유 판매에 의하여서만도 5억 3,000만 딸라의 리윤을 획득하여 전체 자금을 몽땅 회수하였다. 쿠웨이트 석유 회사의 리윤은 더욱 크며 1955년 순 리익은 5억 3,000만 딸라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투자액의 거의 5배에 해당한다.



친구! 좀 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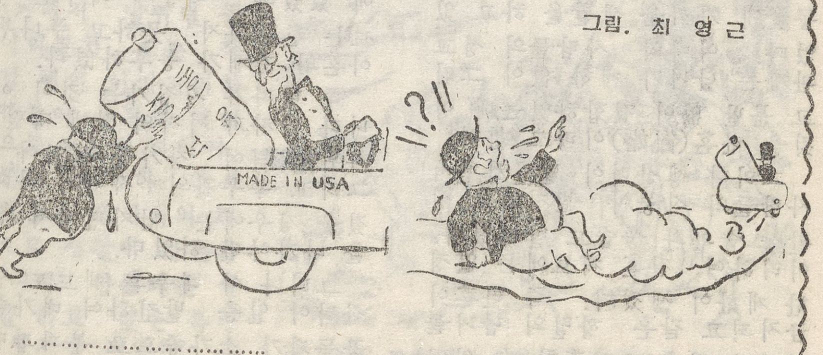
바로 이렇게 중동의 석유는 미, 영, 불 등 제국주의자들의 폭리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동 인민들이 한결 같이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당황 실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안다면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도 악착하게 바그다드 조약 집단을 사촉하여 중동 인민들에게 대항하는가를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어째서 영, 불이 애급 침략 전쟁을 도발했으며 미국이 《아이젠하워 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가를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와 동시에 어째서 그들이 아랍 제국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동을 계속 암암리에 고무 추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기 어렵지 않다.

《바그다드 조약》

이 조약은 1955년 2월24일 토이기와 이라크 사이에 맺어진 군사 동맹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맺어졌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처음 토이기, 이라크 사이에 맺어진 이조약에는 그후 영국, 파키스탄, 이란이 가입하여 모두 5개 국가가 성원으로 되여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가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 군사 조약은 중근동 지역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고 조약 참가국들을 군사 기지화하고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을 반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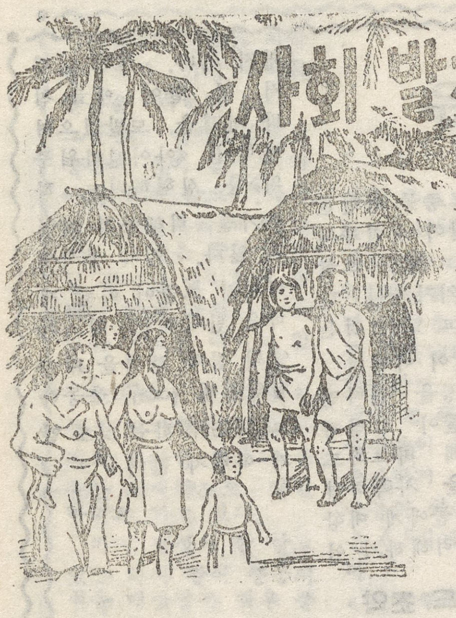
그림. 최 영 근



....

................................!?

사회 발전 이야기 (5)



원시 사회에서 결혼 형태는 어떠하였는가?

사람들의 성교 관계는 생산력 발전과 함께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하였다. 인류가 류인원으로부터 금방 벗어 나온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아직 동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때의 사람들의 성교 관계는 남녀가 제한 없이 그리고 분별 없이 결합하였는데 이것을 란혼(亂婚)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지능이 발전하고 생활상 습관과 풍습도 달라졌다. 이리하여 결혼 제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생겼다. 즉 란혼이 금지되고 같은 항렬의 남녀들끼리만 자유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점차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하는데 이르렀다.

그리하여 근친을 제외한 같은 항렬의 남자는 같은 항렬의 모든 녀자의 남편이였으며 반대로 같은 항렬의 녀자는 같은 항렬의 모든 남자의 처였다. 이것을 푸나루아혼이라고 한다.

그후 결혼 제도는 생산력 발전에 발맞추어 종전의 푸나루아혼 대신에 남녀가 그 결혼 집단안에서 비교적 장기간 단둘이 결합되는 대우혼(對偶婚) 형태가 발생하였으며 생산과 소유 형태에서 사'적 요소가 강화됨에 따라 이 대우혼 형태는 점차 강화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산에서 사'적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모가장적(母家長的) 사회가 그 전성기에 있었다. 때문에 대우혼 제도는 튼튼하지 못하고 푸나루아혼의 잔재가 농후하였다.

즉 녀자가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녀자의 집에 데릴'사위로 되여 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졌을 경우에는 남자편에서 집을 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우혼 제도도 생산력이 일층 발전하여 대가족 공동체가 소가족으로 분괴되면서 재산을 상속할 필요성과 그리고 사'적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남자 하나에 녀자 하나씩 결합하는 일부 일처재(一夫一妻制)로 고착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일부 일처제는 녀자측으로만 일부 일처제였고 남자들은 제2, 제3의 부인을 둘 수 있었다.

오늘날의 일부 일처제는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서 발전해 온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르는 예술의 시작을 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로동하는 과정에서 말을 할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술도 사람들이 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

즉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어떤 큰 물건을 운반할 대나 로동 도구를 만들 때, 그리고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나무에 못을 박을 때에 목소리를 내군하였는데 이것이 차츰 성음화 되여 노래로 되였다. 그리고 사냥이나 고기 잡이에서 큰 성과를 내면 기뻐서 날뛰던 동작이라든가 또는 작업할 때의 이러저러한 동작들이 률동화 되여 춤으로 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생산력의 혜택으로 생활이 정돈됨에 따라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승의 뿔, 조개껍질 그리고 코끼리의 이'발 같은 것을 가지고 목거리 기타 장식품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흙으로 새, 짐승, 사람의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돌에다 이러한 모양을 조각하기도 하고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예술 작품 가운데는 직접 생산과 련결된 것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당시에는 사냥을 주로 하였으니 만큼 화살에 맞은 짐승을 그린 것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과 목축업이 발전하게 되자 원시 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였다. 그의 첫 분업으로서는 농업과 목축업이였다. 즉 가축을 기르기 좋은 지방에 사는 씨족들은 목축업에만 종사하고 농사 짓기 좋은



※ 수확이 많을 때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



※ 동굴의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원시인들

곳에 사는 씨족들은 농업에만 종사하게 되였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씨족과 농업에 종사하는 씨족이 나타난 결과 생산은 일층 발전하여 씨족들에게는 생산물의 여유가 생기게 되였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씨족들에게는 농산물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씨족들에게는 가축의 가죽, 젖 그리고 고기 등의 여유가 생기게 되였다. 이리하여 물물 교환이 발생하였다. 맨 처음 교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씨족과 씨족,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진행되였다.

당시 씨족내에서 교환을 담당한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인 추장들이였으며 교환한 물건들은 역시 공동체 전체 성원들의 공동 재산으로 되였었다.

교환은 수공업이 농업에서 갈라지면서 부터 더 한층 발전하였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과 교환하기 위해서 생산하였다. 결과 수공업의 발생은 물물 교환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되였던 것이다.

그러면 수공업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로동 도구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즉 로동 도구의 발전이 없이는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로동 도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로력하였으며 또한 로동하는 과정에서 로동 도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을 훨씬 더 많이 낼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러나 당시 로동 도구를 만드는 일은 원시적 수공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량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없였다. 특히는 쓰기 편리하고 능률이 높은 철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석을 용해하여야 하였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였다. 여기로 부터 철제 도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과 기타 토기 제조업, 직조업 등이 사회적 분업으로 독립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여러 가지 수공업들이 농업으로 부



※ 생산물의 여유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터 분리되여 독립적인 직업으로 되였다.

수공업이 발전하여 금속 도구 특히는 철제 도구까지 만들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즉 쓰기 좋고 능률적인 철로 만든 로동 도구를 생산에 리용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씨족 전체가 공동적으로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였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씨족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생산 능률도 더 높일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에서 물질적 탐욕 즉 사유욕이 생기게 되였다.

이런데로부터 사람들의 경제 생활 단위는 씨족 중심으로 부터, 대가족 중심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부터 소가족 중심으로 넘어 가게 되였다. 이리하여 여러 가족들이 모여 농촌 공동체를 이루게 되였다. 농촌 공동체에서는 토지는 공동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매개 가족들은 로동 도구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개인 경리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생산물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의 소유로 넘어 갔다. 이리하여 원시 사회의 공동 소유 제도는 무너지고 사유 재산 제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물물 교환이 일층 발전하였다

원시 사회의 말기에 이르러 물물 교환은 일층 빈번해졌다. 결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추장이나 군 사령관들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교환해 온 물건의 일부를 떼내여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일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공동체내에서 남는 물건을 더 주게 됨으로써 재산상 불평등이 생기게 되였다.

사유 재산 제도가 생기게 되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교환이 진행되여 교환은 더욱 발전하게 되였고 이에 따라 빈부의 차이는 점점 심하여지게 되였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추장들과 군 사령관, 그리고 승려들은 자기들의 지도적 지위를 리용하여 교환해 온 물품이나 남는 물품만을 자기의 소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산을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략탈하여 자기들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추장과 군 사령관, 그리고 승려들의 가족은 다른 가족들에 비하여 부유하고도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귀족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시기에 벌써 노예도 발생하였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자 부유하고 권세있는 귀족들은 전쟁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로력을 착취하였다. 이것이 인류 사회에서 맨 처음의 노예인 것이다.

귀족들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됨으로써 빈부의 차이는 더욱 혹심하여 갔다. 평민들은 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되였다. 즉 평민들은 귀족들에게서 생산 자료를 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 그들의 채무자로 될수 밖에 없었다.



※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생산 수단 즉 토지와 산림을 잃어버리고 빈궁하게 된 자들과 귀족들의 빚을 갚지 못한 자들도 나중에는 포로 노예와 함께 부자들의 노예로 되였다.

이리하여 평등하던 원시 사회는 노예 소유자들과 노예 즉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의 두 계급으로 분렬되였다. 착취 계급들은 노예를 가혹하게 착취하며 그들의 반항을 억누루기 위하여 권력 기관—국가를 만드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경로를 밟아 적대되는 계급이 없고 착취와 억압이 없던 원시 사회는 무너지고 인류 사회에서 최초의 계급 사회인 노예 사회가 나타났다.

물질적 대우 문제에 대하여

물질적 대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소비품을 사회의 각 성원들에게 정확히 분배한다는 것은 인민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을 옳게 해결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적극성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보다 훌륭히 동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왜냐 하면 인민의 생활 수준은 근본적으로 생산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는 아주 높은 생활 수준을 요구할수 없다 할지라도 분배를 적절히 실시하기만하면 인민 대중으로하여금 합리적인 물질적 대우를 받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인민의 리해는 깊어지게 될것이며 사회의 각 계층간의 단결은 일층 공고화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사업 의욕과 정치적 열성은 보다 제고될 것이다.

물질적 대우 문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품을 사회의 각 성원들에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도 또한 토론할여 지가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적지않은 사람들은 개인의 리익에서부터 출발하여 물질적 대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개인이 일정한 정도로 자기의 물질 생활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기의 물질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자기 개인의 물질적 대우 문제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일부 청년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누가 사업을 더 많이 하였는가를 대비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물질적 대우만을 대비하려고 달려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보다 일을 더 잘 하며 자기보다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과는 대비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보다 다소 일을 서툴게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보수를 좀 많이 받는 것과 대비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능력은 자기와 거의 비슷한 데 대우는 자기보다 다소 높게 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곧 《불공평》을 느끼며 불쾌해 하면서 자기는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물질적 대우 문제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소비품을 어떻게 분배하여야만 그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를 토론하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되는 분배 원칙은 사회주의적인《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이다.

착취 계급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소비품은 사회 성원들의 로동 여하에 의하여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산 수단의 점유 여하에 따라서 분배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불로(不勞)착취자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일년 내내 우마와 같이 일하는 근로자는 자기가 받은 보수로써 문화 생활은 고사하고 끼니를 잇기도 곤난한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은 자기의 로력적 성과를 과거처럼 착취자들의 호화 방탕에 내맡길 필요가 없게 되였으며 자기의 전체 로력적 성과중에서 그 일부를 사회 및 집단의 생산 자금으로 돌리는 외에 나머지 부분을 직접 근로자 개인이 차지 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집단적 및 사회적 소비로 사용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들 인민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로동하기만 하면 해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전 사회의 사람들이 대우를 꼭 같이 받는 것—이것이 더욱 공평하지 않겠는

가?》이러한 평균주의적 사상은 아직도 일부 청년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의 사회적 생산력은 아직도 고도로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 사회의 분배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낡은 사회의 사상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로동을 제1차적 생활상 요구로 보지 못하며 또 그것을 사회적 리익에 복무하는 훌륭한 도덕적 습관으로 배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많이 일하는 자는 많이 받는다》의 원칙을 실시함에 있어서 물론 사회적 성원의 물질적 대우에는 다과와 고저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창조적 공헌을 하도록 추동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 발전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 동지들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을 지나치게 절대시하는 나머지 이 원칙을 공평과 불공평을 측정하는 유일한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견해는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공평》(혹은 《평등》)이란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 구체적 환경을 떠나서는 리해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청년 동지들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면 보수를 많이 받으며 공헌을 적게 하면 보수도 적게 받는데 어찌하여 이 원칙을 《절대적》공평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고. 사실에 있어서 리치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에 대하여 로동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 자신의 주관적 노력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허다한 객관적 요인도 있는 것이다. 가령 그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또는 우둔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적은 로력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개인의 선천적인 건강과 허약, 총명과 우둔은 그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또 례컨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원칙에 의하여 숙련 로동자들은 보다 많은 물질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왜냐 하면 숙련 로동자는 보다 높은 로동의 질과 량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화주의 사회에서는 그의 경제적 수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적 성원이 다 똑 같은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실례를 든다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오직 일부의 청년들만이 중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숙련 정도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원칙은 어디까지나 공평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 공평을 념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는 물론 이러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가 가장 합리적인 분배 원칙이다.

과학 기술 일'군들의 대우가 비교적 높다는데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우리의 일부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과학 기술 일'군들의 대우를 다소 높게 하는 원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는 과학 및 기술 전문가들이 본래 과거 사회에서부터 계속 우대를 받아 왔다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과학 기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 기술 일'군 특히 고급 전문가의 대우를 적절히 높이고 그들에게 비교적 좋은 사업, 학습, 생활 조건을 보장하여 준다는 이것은 과학 기술 사업을 발전시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과학 기술 사업에 종사하도록 고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 기술 일'군들의 로력 보수 문제와 국가 기관 일'군들의 로력 보수 문제를 각각 다른 원칙에서 보고있다. 국가 일'군들의 로력 보수 문제에서 우리는 국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무원이며 따라서 그들의 봉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군중과 리탈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가 기관 일'군들은 과학, 기술, 문화 부문 일'군들과 그 수준이 동일하며 로동의 질과 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보수는 항상 그들보다 적게 받고 있다. 이 현상은 얼핏 볼 때는 마치 일종의 불합리한 현상인듯 하지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차이가 더욱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 일'군에 대하여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을 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종합한다면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공평》이란 이 추상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고찰한다면 허다한 그릇된 결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국가와 인민에게 리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배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소비품 분배의 주요 원칙으로서의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도 역시 이 기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개의 측면에서 리해하여야 한다. 즉 일면으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소비품 분배의 중요 원칙인것 만큼 우리는 이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다른 일면으로,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는 100프로의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을 구실로 하여 일일히 물질적 대우를 대비한다는 것은 실천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리론적 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혁명적 청년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물질적 대우 문제에서 그들은 보다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오늘의 혁명가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로동에 참가하여 생활 자료를 취득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혁명가이며 우리가 로동에 참가하는 목적은 생활 자료를 취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로동은 2중성——사회적 직업과 혁명 사업——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혁명 사업을 하는 태도로써 자기 직업에 대하여야 한다. 혁명가의 특징은 그가 가장 풍부한 물질적 대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려는데 있다. 명예와 지위와 물질적 대우를 추구하는 면에서 공산주의 혁명가는 응당 《머저리》가 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머저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가라는 칭호를 간직할 수 없다. 수 많은 혁명렬사들은 자기의 지위와 물질적 대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은 그들을 《머저리》로 볼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이러한 《머저리》의 노력에 의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또한 장래의 건설에 있어서도 이러한 《머저리》의 노력에 의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가는 사회적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우가 좋

고 나쁜 것을 가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적 요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가령 국가가 그에게 대우가 좀 낮은 데에 배치할 때에도 역시 이 배치에 쾌히 복종하고 자기의 최대의 력량을 경주하여 일을 잘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그는 국가의 요구는 다방면적이며 만약 모두가 좋은 것만 택하고 다소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건설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기가 매우 곤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호상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우리는 집단주의를 주장하면서 물질적 대우를 일일히 대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째서 개인의 리익을 돌보아야 하며 물질적 리해 관계로써 사람들의 로력적 열성을 자극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물질적 대우를 대비하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지 않는가? 고.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표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북돋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첫째로 정신적 및 물질적 표창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성을 제고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밖에 또 우리는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 속에서 주도 세밀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곧 자각적인 사회주의 공민의 신성한 임무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물질적 및 정신적 표창은 또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표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광범한 군중에 대한 교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법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중의 의식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나머지 물질적 및 정신적 표창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물질적 및 정신적 표창의 방법만을 사용하고 사상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다면 그것도 역시 군중의 참된 열성을 발휘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표창이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는 표창의 방법을 취하는 목적이 개인의 명예나 리익을 주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데까지나 이 방법을 통하여 군중을 발동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리익은 개인의 리익과 결합되며 개인의 리익은 국가의 리익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의식 정도가 호상 다르며 또 호상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물질적 및 정신적 표창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형식도 각각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례컨대 생산 부문 과학 기술 일'군에게 우리는 장금을 줄 수 있으며 타자원과 같은 일부 국가 기관 일'군들에게도 우리는 로동량을 계산하여 자기의 임무를 초과 완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 간부나 그와 같은 일부 부문 일'군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선진 일'군들을 놓고 말해 보기로 하자. 그들은 응당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또 훌륭히 복무하여야 하는바 이것이 그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인민에게 복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통 사람에게 요구하듯이 그들에 대한 요구성을 늦출 수는 없다. 공산주의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혁명적 청년들에 대하여 말해 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열성적으로 사업하도록 추동하는 것은 물질적 대우를 주자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공산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심각한 인식을 가지게 하여 사업을 더 잘 하게 하자는 것이다. 매개 혁명가들은 이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김 난용 편역

—《중국 청년》에서—

위생 지식

처녀와 월경

녀자들은 소녀 시절때부터 월경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성(性) 호르몬(分泌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 호르몬은 소녀때엔 량적으로 적은데 숙성해 갈 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몸 전체에 급속한 변화가 나타난다.

란소는 주로 두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다. 란자가 성숙 때에는《홀리쿨린》이란 호르몬이 나오고 란자가 나온 후에는 소위 황체 호르몬이 나온다.

그런데 이 두 호르몬은 자궁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대해서 나온다. 즉 《홀리쿨린》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나올 때에는 자궁 내 막에 있는 분비선(分泌線)이 커진다. 이 현상은 약 2주일동안 계속된다. 그 다음에는 황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자궁 내막이 떠러져 나오면서 피가 흐른다.

바로 이것이 월경(月經)이다.

월경이 끝나면 즉, 자궁안에서 나오는 피가 멎으면 벌써 2, 3—5일후부터 《홀리쿨린》의 영향밑에 새 란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자궁 내막이 아물었다가 얼마후 다시 그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흘러 또 월경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하여 진행되는 월경은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13~16세부터 시작되는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늦게 시작될 수도 있다. 례를 든다면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처녀들은 빨리 초경 (첫 월경)이 시작되며 추운 지방에 사는 처녀들의 초경은 늦게 시작된다. 또한 도시에 사는 처녀들은 농촌의 처녀들보다 초경이 빠르다.

월경은 보통 3~5일간 계속되며 첫날에는 많고 다음 차차 량이 적어지든가 그쳐버리는 것이 보통이고 다음 월경은 21~28일이 지나서 시작된다. 물론 이 기간보다 빨리 혹은 늦게 시작되는 수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수'자적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날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처녀들에게 있어서 월경은 아무런 고통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처녀들은 월경이 시작될 때 아랫'배나 허리가 약간 아픈 것을 느낀다. 이것은 처녀들의 체질, 발육 상태 (호르몬 관계) 정신 상태등에 의한 것이다.

월경시 녀성 청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가지 질환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월경이 녀성들의 몸에 전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드시 여러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만큼 그곳에 상처가 생긴다. 이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균들이 침입할 수

있으며 저항력이 저하된 틈을 타서 여러가지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월경시에 강이나 못에서 멱을 감거나 일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야 하며 될수록 물을 떠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내의도 갈아 입는 것이 좋다.

월경시에는 특히 외음부를 잘 씻어야 한다. 월경시 나오는 피는 균들이 빨리 번식하는 동시에 이를 따라 우로 올라가 자궁으로 침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두번씩은 따뜻한 물과 비누로 외음부를 씻되 세면기에 물을 떠서 그 속에서 씻지 말고 따로 물을 떠서 씻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일부 처녀들 속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게을리 하는 경향들이 있다.

외음부 세척과 함께 월경대를 자주 갈아대야 한다. 월경대는 매일 2~3회는 교환하여야 하는데 교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월경대를 다리미로 한번 대려서 사용하여야 한다.

월경시는 몸을 차게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아래'배와 다리를 덥게 하여야 한다.

음식은 보통 먹는 것으로 되지만 매운 음식, 식초 등과 같이 자극성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음식물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월경이 더욱 심하여 많은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처녀들은 월경시 뒤가 굳어져서 고생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가 굳어지지 않도록 사하제를 복용하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곧 찬물을 한사발 마시든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줌통이 뿔어나는 버릇이 있는 경우도 역시 소위 자궁 후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월경시에는 소변을 자주 보아야 한다.

월경시라도 건강한 녀성이라면 자기 맡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적당한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며 특히 말, 자전차 등은 타지말 것이며 뛰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삼가야 한다.

녀성들이 자기 월경의 날자와 성질을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것을 봄으로써 월경이 순조로운가 불순한가를 알수 있으며 나타나지 않은 병을 제때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생 사항들은 물론 어느 녀성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근로하는 녀성 청년들은 자기 사업과 월경과의 관계를 잘 알아서 월경 불순이나 생식기 질환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하는 녀성 청년들은 직장에 설비된 녀성 위생실을 리용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편집 위원회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 생활 제 5 호 1957년 5월 1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5월 7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원) ㄱ—40454 50,000부

평화와 친선을 위한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준비



